

INVITATION TO THE ARTS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5
vol.305



표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카르멘, 막내 조연출의 후일담

세계의 공연장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특색있는 공연도시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BNK부산은행이 창립50주년을 맞아 젊은 예술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앞장서고자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함께
BNK행복한 음악캠프를 개최합니다.**



제5회

행복한 음악캠프

**참가자
모집**

BNK 부산은행 창립50주년 기념



사진설명 : 2016년 제4회 BNK부산은행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교수진

<p>예술감독 오승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 KNN 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부산실용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필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비올라 임찬주 독일 뒤셀도르프, 오스트리아 빈 독일하노버 국립음대 졸업 비인국립음대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중앙 오케스트라 비올라수석 역임 현) 중앙대학교 음악과 교수, KCO (서울, 서울에코합주단) 오케스트라 비올라수석</p>	<p>플루트 이예진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수석, 원형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Dolce-Powell Flute Artist</p>	<p>호른 이석준 서울대학교 졸업 KBS-FM 한국의 음악가 윤남,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p>
<p>관악지도교수 이정성 서울대학교, 미국 연하인 음대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p>	<p>비올라 홍혜이 커티스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원, 메네스 음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수석</p>	<p>오보에 이승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 서울예술종합학교, 안양대학교 외래교수</p>	<p>트럼펫 안희찬 로테르담 음악원 최고연주자 졸업, KBS 아시아팀, 코리아실포니 수석역임, 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정준수 경희대학교,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싱가포르 교향악단 부악장,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현) 경희대학교 교수</p>	<p>첼로 이희덕 서울대학교, 미국 Louisiana 주립대학 및 동대학원(박사) 졸업 코리아실포니 수석, 동양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울필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p>	<p>오보에 이윤정 서울대학교, 미국 줄리아드(석사) 졸업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 경희대학교 교수, 금호생명유치소사이버티 멤버</p>	<p>트롬본 김준우 미국 맨해튼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 서경대학교 교수</p>
<p>바이올린 박재진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졸업 현) 동의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p>	<p>첼로 송희순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2016 한국음악상 수상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서울솔리스트필로양상블 음악감독</p>	<p>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원형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 체리트리셀비앙상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p>	<p>튜바 김남호 프랑스 콘서바토리 수석 졸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아카데미 드 브라스 멤버</p>
<p>바이올린 김현미 미국 메네스 음대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파르메21 제1 바이올린주자 코리아나 챔버유치 소사이버티 음악감독</p>	<p>클라리넷 강창호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오케스트라 수석</p>	<p>클라리넷 장재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 학사 졸업 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대, 영남대, 인제대 외래교수</p>	<p>타악기 박경서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학생 역임 현) 서울국제마사지(메디컬) 음악감독</p>
<p>바이올린 양고운 서울대 석학송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원형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부천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현) 경희대학교 교수</p>	<p>베이스 박현규 연세대학교, 원형 국립음대 졸업 (마이스트 과정) 비열 국립음대 졸업(솔리스트 과정) 현) 독일 쾰른-니르 슈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p>	<p>바순 김경수 한양대학교,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바순 수석 역임 현) 한양대학교 교수</p>	<p>하프 김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담수 졸업 현) 계명대학교 신양예술고등학교 출생 전주시립교향악단 재원 수석</p>
<p>바이올린 양경아 미국 맨해튼 음대 및 대학원, 해밀턴 대학교 (박사) 졸업 현) 동아대학교 교수, KNN 방송교향악단 악장 부산실포니오케스트라 악장</p>	<p>플루트 오신정 서울대학교, 미국 연하인 음대 대학원 졸업 KBS교향악단 부수석역임, Powell Flute Artist, 현) 인제대학교 교수</p>	<p>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노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롬쇠어실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 일본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p>	<p>부지휘자 다니엘스 김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현) KNN 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실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p>

모집요강

모집인원	100여명 (현악, 관악, 타악, 하프)
지원자격	음악전공자로서 만16세(2001년생)이상 29세(1988년생)이하 이면 누구나 가능
참가접수	<p>① 기간: 2017. 5. 2(화) ~ 5. 31(수)</p> <p>② 접수 방법: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 (www.happybnk.c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p> <p>③ 참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선발시 우대)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첨부서류는 지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용 전액 무료

오디션	<p>① 오디션 곡목: 자유곡 1곡 (빠른 악장)</p> <p>② 오디션 방법: 신청자 전원 3분이상 연주 동영상 파일로 오디션 진행</p> <p>③ 접수 기간: 2017. 6. 1(목) ~ 6. 8(목)</p> <p>④ 접수 방법: 이메일 (bnkmco@naver.com) 접수</p> <p>⑤ 결과 발표: 2017. 6. 22(목) 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발표</p>
-----	--

문의처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T. 051-661-4831) ※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캠프안내

캠프기간	2017. 7. 17(월) ~ 7. 22(토) (5박 6일 합숙)
캠프장소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교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교수진의 전공별 앙상블 지도 • 오케스트라 발체곡 지도,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 지도 • 지도교수 특별 및 합동 연주
캠프특전	<p>참가자 전원 수료연주회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7. 7. 22(토) 오후 4시 • 장소: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 소재) • 입장료: 무료 • 입장권 신청: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연주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보르자크 /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22, 제1악장 A. Dvorak / Serenade for Strings in E major, Op. 22 I. Moderato • 모차르트 / 바순 협주곡 작품191, 제1악장 W. A. Mozart / Bassoon Concerto in B-flat major K.191 I. Allegro • 로시니 / 도둑까치 서곡 G. Rossini / Overture "La Gazza Ladra" •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M. 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	---

2017 Cellist 시리즈 Ⅲ

이효상 & 양욱진



첼로 양욱진



지휘 이효상

The 60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예술감독 김원명



작곡 정재운

정재운 Overture '소래(蘇來) 포구' in F# minor

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Rimsky-Korsakov Symphonic suite 'Sheherazade', Op. 35

2017. 5. 18 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입장료 | 1만원 문의 | 051) 220-5812 예매 | INTERPARK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BRPO)

제 3회 을숙도오페라 페스티벌
2017.7.3 ~ 7.22

문혀졌던 피맺힌 역사 — 윤흥신
임진왜란 1592년
부산 다대성을 지키다 순절한 다대첨사 윤흥신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오페라의 대작!

윤흥신

오페라

윤흥신(尹興信) [?-1592]

1582년(선조 15)에 진천 현감에 부임하였으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1592년(선조 25)에 다대진 광검제사로 임명
되었고,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군은 4월 14
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고 이튿날 다대진성을 공격하였다. 윤흥신은
동생 윤흥재(尹興載)와 함께 만·규·군을 독려하며 힘껏 싸우다가 전사
하였다.

윤흥신의 순절 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윤흥신은 왜적이 항거하여 싸우다가 죽었
다”, 윤흥성(柳成龍)의 『장비록(鎡鎔錄)』에는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써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宣祖) 때
과산성을 지낸 구사환(具思完)이 지은 『조방록(櫓亡錄)』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껏 싸운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튿날 많은 수의 왜적이 쳐들어오자 군졸은 모두 도망쳤고, 윤흥신은
홍로 남아 온종일 싸움 쓰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인조(仁祖) 때의 학자 신명(申鼎)이 쓴 『재조 변방지(再造邊邦志)』
에는 “도적이 병사를 나누어서 서경포 다대도를 함락시켰다.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껏 싸웠으나 피살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작 곡 | 최 천 희
대 본 | 최 천 희 · 김 봉 희 · 임 오 섭

예술감독 | 김 원 명
제 작 | 김 일 택
연 출 | 김 성 경
음악감독 | 이 소 영

2017.7.21 | 금 | 오후 7시 30분, 22 | 토 | 오후 2시, 6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2017. 5. 17 | 수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 연 김유섬, 허미경 (소프라노)

박소연 (메조 소프라노)

정태성 (테너), 김은곤 (바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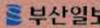
BNK 금융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16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주 최 | 문 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051)637-0125

후 원  부산문화재단  BNK 금융 부산은행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 본 공연은 '2017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음악회 지정후원금과 출연인 재능기부로 개최됩니다.

무료관람 응모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추첨 후 개별통지

2017 부산국제음악제 안식년 기념연주회

앱솔루트 MOZART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부산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12인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27개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12곡을 사흘에 걸쳐 릴레이로 연주합니다.
그 어떤 곡도 놓칠 수 없는 감동의 협주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황성훈



방정애



조혜영



배수영



신정운



송유진



김유진



심정연



양진경



김정화



한예정



윤지영

6. 5 / MON

PIANO CONCERTO No.12 IN A MAJOR, K.414 황성훈
PIANO CONCERTO No.14 IN E FLAT MAJOR, K.449 방정애
PIANO CONCERTO No.17 IN G MAJOR, K.453 조혜영
PIANO CONCERTO No.19 IN F MAJOR, K.459 배수영

6. 6 / TUE

PIANO CONCERTO No.13 IN C MAJOR, K.415 신정운
PIANO CONCERTO No.20 IN D MINOR, K.466 송유진
PIANO CONCERTO No.25 IN C MAJOR, K.503 김유진
PIANO CONCERTO No.26 IN D MAJOR, K.537 심정연

6. 7 / WED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K.467 양진경
PIANO CONCERTO No.23 IN A MAJOR, K.488 김정화
PIANO CONCERTO No.24 IN C MINOR, K.491 한예정
PIANO CONCERTO No.27 IN B FLAT MAJOR, K.595 윤지영



지휘 박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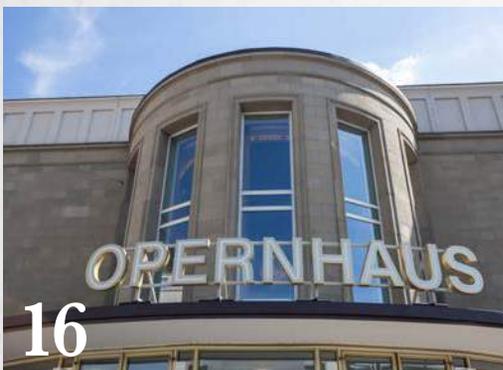
UM챔버오케스트라

2017. 6. 5(월) 6(화) 7(수) 7:30 오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interpark.com

입장권 | R석 3만원 S석 2만원 20인이상 단체 20% 할인(전화예매에 한함)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SPECIAL +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특색있는 공연도시들



VIEW +
문화가 화제
2017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2017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展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10 커버스토리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ULTURE +

- 12 5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카르멘, 막내 조연출의 후일담
- 16 세계의 공연장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특색있는 공연도시들
- 20 축제 속으로
2017 제12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22 테마가 있는 여행
'별주부전의 교장' 사천으로 떠나는 봄여행

VIEW +

- 30 프리뷰
- 36 문화가 화제
2017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2017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展
- 41 리뷰
- 44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9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5월호 통권 30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을 찾는다.

지난 1937년 프랑스 국립방송국 산하 교향악단으로 창단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76년 재창단과 함께 지휘자 질베르 아미(Gilbert Amy)가 초대 음악감독을 맡아 오케스트라의 이미지 개선과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재도약을 이끌었다. 1990년대 들어 독일 출신의 거장 마렉 야노프스키(Marek Janowski)가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천 의무봉의 매끄러운 하모니'라는 찬사를 받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후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지휘 아

래 완벽한 사운드를 구축하며 전 세계 평론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정명훈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음악감독을 맡아 우리에게도 친숙한 오케스트라로, 현재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지휘자 미코 프랑크(Mikko Franck)가 정명훈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아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거장 미코 프랑크는 30대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로 발돋움한,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이다.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 헬싱키 시벨리우스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1995년부터 요르마 파놀라(Jorma Panula)에게 지휘를 배운 미코 프랑크는 23세 때인 2002년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25세 때 핀란드 국립오페라 음악총감독으로 발탁되면서 '제2의 사이먼 래틀'로 불리기도 했다. 전 세계 유명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를 누비며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 무대에 자리매김해온 미코 프랑크는 그동안 베를린필하모닉, 뮌헨필하모닉,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밤베르크심포니, 말러체임버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닉, 샌프란시스코심포니, 시카고심포니 등을 지휘했으며, 핀란드 국립오페라, 로열스톡홀름오페라, 영국 로열오페라 등과 오페라 '파르지팔', '마술피리', '돈조반니', '라보엠', '카르멘', '토스카', '사랑의 묘약' 등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가 스웨덴 방송교향악단과 녹음한 시벨리우스의 '전설'과 '레인카이넨의 전설' 음반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며 2001년 디아파중 황금상을 수상했으며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젊은 거장들의 만남, 미코 프랑크 X 손열음

미코 프랑크의 첫 내한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테크닉의 피아니스트 손열음과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쓴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린 마젤, 네빌 마리너, 드미트리 키타옌코, 로렌스 포스터, 유리 바슈넛, 정명훈 등이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닉, 이스라엘필하모닉, 체코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바르샤바필하모닉, 쾰른귀체르니히오케스트라, 마린스키극장오케스트라, NHK심포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마틴인더필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독일 라인가우페스티벌, 바트 키싱엔페스티벌, 프랑스 브장송페스티벌, 폴란드 베토벤부활절페스티벌, 스웨덴 발틱시 페스티벌 등 유명 페스티벌 무대에 서기도 했다. 2016년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 부예술감독으로 활약 중인 손열음은 제1회 '금호음악인상', '난파음악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동아일보의 '한국을 빛낸 100인'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장으로 나아가는 두 연주자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미코 프랑크와 손열음은 재즈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인 조지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프랑스의 대표 방송교향악단이 선사하는 '프렌치 사운드'

핀란드 출신의 미코 프랑크가 선택한 첫 곡은 핀란드의 국민작가 시벨리우스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녹턴'.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은 1898년 시벨리우스가 그의 친구인 스웨덴 작가 아돌프 파울이 쓴 '크리스티안 2세' 역사극의 부수음악으로, 전체 5악장 중 1악장 '녹턴'은 사랑스러우면서도 서정적인 선율로 사랑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하는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에 이어서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의 관현악곡 '어미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으로 정통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5~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05

2017 MAY

12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SUN	MON	TUE
	1 대 부산장로성가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총무 주수원(010-3591-0176) 소 아 2017 부산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10:30~17:00 무료(인형극 '꼬마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전석 2천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	2 대 박애진, 류찬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 박애진(607-6222, 010-2284-3755) 소 아 2017 부산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10:30~17:00 무료(인형극 '꼬마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전석 2천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
7	8	9 대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5만원·3만원·2만원 우리아트(920-9545)
14	15	16 대 시민과 함께하는 2017 평화통일콘서트 19:30 초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21 대 2017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홍보공연 '부산을 빛낸 세계발레스타전' 17: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	22 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금명여자고등학교 '아름다운 시인'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3 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부산여자고등학교 '방황하는 별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8 대 Bella voce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벨라보체합창단 (010-5500-3086, 010-2503-9705) 소 아마빌레 정기연주회 16:00 무료 김유희(010-5556-7992)	29	30 대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관현악축제' 19:30 전석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소 제2회 벨라 무지카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 강현아(010-5520-8728)

WED	THU	FRI	SAT
<p>3</p> <p>대 월드브리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20만원·10만원·5만원·3만원 월드브리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074-0366)</p> <p>소 아 2017 부산시립극단 어린이 연극체현 페스티벌 10:30~17:00 무료(인형극 '꼬마도깨비 깨비의 옛날, 옛날에' 전석 2천원) 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4</p>	<p>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2017 어린이날 특별기획 공연 '딱따구리 음악회' 11:00, 15:00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55, 6057)</p>	<p>6</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아버지와 함께하는 호 콘서트' 15:00 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55, 6057)</p>
<p>10</p> <p>소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0:15, 11:20 전석 1만원(단체관람 전석 5천원) 희망극단(010-2258-9411)</p>	<p>11</p> <p>소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0:15, 11:20 전석 1만원(단체관람 전석 5천원) 희망극단(010-2258-9411)</p>	<p>12</p> <p>대 2017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11:00(단체관람), 19:30 전석 2만원 김옥련발레단(626-9486)</p> <p>소 제2회 국제음무용단 정기공연 17:00 1만원·5천원 국제음무용단(010-3595-5448)</p>	<p>13</p> <p>대 2017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17:00 전석 2만원 김옥련발레단(626-9486)</p>
<p>17</p> <p>대 제6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관람 응모 후 추첨)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문헌여자고등학교 '컬러풀'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8</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개성고등학교 '불타는 별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19</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독일 낭만음악의 거장들'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남산고등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0</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12만원·10만원·7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4</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만덕고등학교 '널 모를리가 있겠니'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5</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출, 인상(印象)' 19:30 전석 1만원(3매 구입시 1매 무료 증정)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부산중앙고등학교 '게이트'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6</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출, 인상(印象)' 19:30 전석 1만원(3매 구입시 1매 무료 증정)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소 제3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부산정보고등학교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16:00, 19: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p>	<p>27</p> <p>대 제3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무용예술제' 17:00 무료 부산무용협회(632-5116)</p>
<p>31</p>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I - 푸치니' 11:0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 박경진 가야금 독주회 19:30 초대 박경진(010-8230-4665)</p>	<p>전시실</p> <p>한국추사서화예술 전국대전 - 대전시실 4월 28일(금)-5월 1일(월) 문의: 권오관(010-3860-9958)</p> <p>제4회 부산서예전람회 - 대전시실 5월 12일(금)-5월 15일(월) 문의: 부산서예전람회(759-8858)</p>	<p>2017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학생사진공모전 - 대전시실 5월 19일(금)-5월 24일(수)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631-1377)</p> <p>2017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만들기대회 및 체험교실' - 대전시실 5월 27일(토) 오후 1:00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631-1377)</p>	<p>불자 자선 禪서에 소장전 - 대전시실 5월 29일(월)-6월 1일(목) 문의: 선재선재나눔(723-8809)</p>

카르멘, 막내 조연출의 후일담

14



2020년 부산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종합 예술 오페라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5월호부터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와 특별한 오페라 백 스테이지 투어를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장대한 텍스트에서부터 가슴을 적시는 아리아,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낸 연출가와 성악가 등 오페라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최고의 오페라 무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아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오페라'와의 즐거운 만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때는 1993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카르멘' 공연 시작 직전 막내 조연출은 전당 앞 '릿츠'라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가고 있다. '카르멘'의 노래 '하바네라'에 쓰이는 꽃을 꼭 생화로 해야 한다는 프랑스 연출가의 갑작스런 요청에 조화로 해도 된다는 의견과 당시 예술의전당 근처 어느 곳에서도 급히 생화를 구할수 없다는 중론 속에 어린 막내는 "제가 책임지고 꼭 구해오겠습니다!"며 호기롭게 뛰쳐나간다. 공연 일주일 전 연출자와 함께 식사했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던 장미꽃 한송이의 기억이 TV화면처럼 그의 뇌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깊은 숨을 내쉬 후 의연한 모습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구석진 곳에 빈 테이블이 보였다. 레스토랑 분위기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캐주얼 복장의 어린 학생은 머쓱해하며 그 자리에 앉았다. 지배인이 놓고 간 물로 목을 축이며 바라본 테이블 위의 장미는 마치 미네르바가 웃음 지으며 입맞춤 하듯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는 데, '아차!' 분장실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순간 죄책감보다는 아직 살아있는 이 장미가 무대에서 더욱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몰래 품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다가 그곳을 뛰쳐 나와 극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미네르바는 공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했다.

2006년, 이전의 그 막내는 최연소 국립오페라 상근 연출자가 되었고, 이듬해인 2007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 공연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공연 전 소품 담당 스태프에게 '카르멘' 오프닝 공연의 장미꽃은 본인이 가져오겠다고 하며, 14년 전 그곳으로 향한다.

다소 한산한 시간 이른 저녁을 먹은 후 지배인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장미꽃 한송이를 사고 싶다고 한다. 지배인은 처음에 안된다고 하다가 집요한 그의 요청에 근처에 꽃 가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사시냐고 웃으면서도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 그로부터 사연을 들은 지배인은 14년 전에도 자신이 이곳의 지배인이었노라며 이전의 꽃값까지 치루려

고 하는 연출자에게 "이곳의 장미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웃으면서 얼굴로 축하해준다. 예전의 미네르바 같았던 장미꽃보다 더 예뻐 보이는 꽃에 행복에 겨운 입맞춤을 한 연출가의 '카르멘' 오프닝 공연은 그날 대성공이었고 오페라 공연으로는 드물게 추가 상연이 확정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 당시 프랑스 연출자가 막내 조연출에게 한 덕담이 기적같이 이루어진 순간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당신은 나중에 꼭 성공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연출로 카르멘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카르멘' 공연이었다!

오페라연출가 **이의주**

최연소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가로 국립오페라단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이의주는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디'를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경주 예술의전당, 포항시립예술단, 프라임필 주최 '사랑의 묘약' 연출 및 해설,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팔스타프', 대구오페라하우스 1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콘서트 등 유수의 단체에서 '라보엠', '카르멘', '투란도트', '토스카', '마술피리' 등 수십 편의 오페라 및 콘서트를 연출하며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왔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극장(살레르노) 초청으로 '세빌리아 이발사'를 연출, 호평을 받기도 한 이의주는 MN 오페라 스타 시즌 1 무대 총연출, 덴테너스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연출로 대중들과도 친숙하다. 특히 2016년부터 부산문화회관 오페라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를 통해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GERMANY

X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N O R D R H E I N - W E S T F A L E N

특색있는 공연도시들

16

최근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독일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문화라는 영역 안에서 독일이 유럽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훨씬 커보인다. EU 유럽연합 이후 더욱 더 가속을 내는 듯 보이는데, 결국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한 도시를 언급하기보다는 독일 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수가 많은, 그리고 특별한 클러스터(cluster)를 가지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독일어 Land Nordrhein-Westfalen, 이하 NRW) 주(州)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언젠가 독일의 고속철 이체(ICE)를 타고 여행하던 중 한 독일인이랑 독일 내 도시랭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든 순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각자의 생각은 비슷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구 330만의 베를린이 독일의 최대도시라는 데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어 함부르크(Hamburg), 뮌헨(Munchen)까지는 이견 없이 순위를 매겨갔으나 4위, 5위부터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필자는 우리 국적이기 독일 내 유일하게 직항노선이 있는 유럽의 관문도시 프랑크푸르트(Frankfurt)가 그 뒤를 이어 4위일 줄 알았는데 논란 끝에 찾아본 결과는 쾰른(Koln)이었다(List of cities in Germany by population, Wikipedia 참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검색 결과 중 에센(Essen, 6위), 도르트문트(Dortmund, 7위), 뒤셀도르프(Dusseldorf, 9위) 등 랭킹 Top10 중 4개의 도시와 이어 뒤스부르크(Duisburg, 12위), 보훔(Bochum, 17위), 부퍼탈(Wuppertal, 18위), 본(Bonn, 19위)까지 20위권 안에 포함된 도시들이 다 하나의 주(州)에 있는 것이다. 이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 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이다.

이 도시들은 주(州)도인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불과 30~40km 반경 안에 위치해 있다. 무려 16개의 연방 주로 이루어진 독일에서, 독일 내 인구수 20위권의 도시 중 절반 가까이가 단 하나의 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는 몇달 뒤 이 지역을 둘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순은 단순히 규모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과도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베를린, 함부르크 등은 필자가 앞서 본지를 통해 소개한 도시들이기도 하다. 이어서 소개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대표하는 도시들은 클래식, 오페라, 무용 등 각기 개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살려 독특한 공연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연을 즐긴다

켈른 Köln

일치감치 연방 주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독일은 지역마다 방송국이 있으며, 크게 다음 6개 지역-NDR 북독일, WDR 서독일, SWR 남서독일, BR 바이에른, MDR 중부독일, RSB 베를린으로 나뉜다. 이 중 켈른을 중심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WDR 서독일방송국의 주파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서독일방송 교향악단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현악단이다. 아레나 형의 무대와 객석을 평면으로 한 켈른 필하모니아(Philharmonie)를 전용홀로 쓰는 이 오케스트라는 이웃도시인 뒤셀도르프나 도르트문트, 빌레펠트, 뒤스부르크 등 방송국 관할 지역에서 다양한 기획의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로열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세계적인 바리톤 사무엘 윤이 활동하고 있는 켈른 오페라극장(Oper Köln)이 잘 알려져 있다.

에센 Essen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은 켈른의 WDR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지만 최고의 음악당은 독일 철강왕 알프레도 크루프의 후원으로 건설된 에센 필하모니아 알프레드 크루프홀(Alfried krupp saal)이다. 또한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알토가 지은 알토극장(Aalto Theater)이 같이 위치해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의 연주회와 공연이 연일 열리고 있다.



뒤셀도르프 라인강변

뒤셀도르프 Dusseldorf

뒤셀도르프 구시가지의 북쪽, 라인강변에 다목적 공연장 톤할레(Tonhalle)가 있다. 1926년에 걸쳐 다목적 행사장으로 건축되었는데 초기의 명칭은 라인할레(Rheinhalle)였다. 2차대전 당시 파괴되었으나 1978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객석 수 약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베를린에 위치한 도이치오페라와 함께 서독 시절, 동독에 위치한 유서 깊은 오페라극장에 대응하기 만들어진 또 하나의 도이치오페라가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Deutsche Oper am Rhein Dusseldorf & Duisburg', 라인강의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의 오페라극장이다. 이름이 말해주듯 지역을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이다.



라인강의 뒤셀도르프

보훔 Bochum

보훔에는 아주 특별한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는데 바로 뮤지컬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Starlight Express)' 전용극장이다. 국내에는 아직 소개된 바 없는 작품이기에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히트 뮤지컬로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흥행기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6년 전인 2010년에 단일 극장, 단일 작품으로는 최초로 누계관객 1,400만 명(기네스 인증)이 이곳 전용극장에서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를 감상했다고 한다. 전 출연진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무대 위에서 질주하는 레이스를 볼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독일 ICE, 프랑스 TGV, 일본 신칸센과 같은 기차들이다. 유럽인들에게 기차는 향수 어린 추억이 깃든 것이기에 이 뮤지컬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다. 인구 4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관객 수가 1,400만 명, 1,800만 명이라는 NRW 지역인구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국경에 두고 있는 이 지역의 위치에서 그 숫자를 가늠케 한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익스프레스' 공연장면



부퍼탈 오페라하우스 전경

부퍼탈 Wuppertal

‘부퍼 계곡’이라는 뜻의 이 도시는 라인 강의 지류인 부퍼 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 ‘슈베베반(독일어 Schwebebahn)’으로 불리는 독특한 형식의 모노레일이 운행을 시작하여 도시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는데, 이로 인하여 일대의 작은 도시들의 통합되어 부퍼탈이라는 한 도시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궤도가 차량 위로 나 있는 이 모노레일은 현재까지도 운행하고 있어 부퍼탈의 명물이다. 하지만 현대무용계에서는 피나바우쉬(Pina Bausch)에 의해 확립된 ‘부퍼탈, 탄츠테아터(Tanz Theater, Wuppertal)’가 더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9년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현재에도 부퍼탈 탄츠테아터는 매 시즌 현대무용을 공연하고 있다.

본 Bonn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 정부의 수도였던 본은 이 지역 최대도시인 쾰른이랑은 불과 10여 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문화 콘텐츠 상당부분이 쾰른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250여 년 전 이 곳에서 베토벤이 태어났으며 현재는 그의 생가가 베토벤 박물관으로 탈바꿈해 많은 음악팬들이 찾고 있다.

이상 NRW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6개 주요 도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 등은 독일 분데스리가 전통의 축구 명가이다. 그리고 현대 미술시장에 있어 쾰른은 뉴욕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는 도시이며 에센, 뒤셀도르프는 독일을 대표하는 미술관을 다수 가지고 있다. 만약에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생기면 꼭 NRW에서 다양한 도시들의 개성 넘치는 문화시설을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부퍼탈의 슈베베반



본의 베토벤 동상

2017 제12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아직까지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마시고 단지 축제에 오셔서 음악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멋진 음악과 훌륭한 음악가들이 모여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실내악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강동석 예술감독

매년 서울의 봄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물들여온 2017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5월 16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지난 2006년 ‘음악을 통한 우정’이라는 모토를 걸고 첫 발을 내딛은 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탕글우드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목표로 매해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열세에 있는 실내악 분야를 활성화하고 신진 연주자를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순수예술분야에서는 유례없는 호응과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주제는 ‘아시아’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바흐, 슈베르트 등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적 레퍼토리에서부터 강석희, 브라이트 쎅, 카르크-엘레르트, 리핑 왕, 호소카와, 타케미츠 현 시대 아시아 출신 작곡가들의 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한 동북아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동석과 첼리스트 조영창, 피아니스트 김영호, 비올리스트 김상진 등 지난 10여 년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지켜온 아티스트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아키코 스와나이, 초량 린,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야르, 초요시 츠츠미, 피아니스트 사 쉐, 플루티스트 마티어 듀푸르 등 초특급 해외 초청 아티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김봉소리, 장유진, 피아니스트 김정원, 박종훈, 문지영, 선우예권, 노부스콰르텃, 플루티스트 최나경, 비올리스트 이한나 등 국내 외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모여 아름다운 실내악을 수놓을 예정이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매년 재치와 유머, 사색과 의미를 담은 소재목들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음악회의 색깔을 대변해왔다. 올해 역시 강동석 예술감독의 재치있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 16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연의 제목은 ‘아웃 오브 더 슈레도우’로, 발표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그림자’ 뒤에 가려있던 주옥같은 작품들을 골라 공연을 구성했다. 25일 열리는 ‘비올라와 친구들’은 보통 실내악에서 주목받기 힘든 악기인 ‘비올라’가 곡의 중심을 이끄는 작품들만을 모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며, 26일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들려줄 ‘God Save the Queen.tet’는 영국 국가(國歌)의 고유명사인 ‘God Save the Queen’을 변형한 재치가 엿보인다.

이번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서는 클래식 음악회에서 보기 힘든 피아노 즉흥연주를 들을 수 있다.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카롤 베파는 5월 20일 가족음악회에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 ‘이민자’, 21일 연주에서는 무르나우 감독의 무성영화 ‘일출’ 상영에 맞춰 두 차례 즉흥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가족음악회에서는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야르가 힙합댄서 이브라힘 시스코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첼로, 힙합댄서를 만나다’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1 가족음악회
- 2 첼리스트 조영창
- 3 피아니스트 김영호
- 4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아르
- 5 첼리스트 초요시 츠츠미
- 6 노부스카르텟



Program

5월 16일(화)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아웃 오브 더 쉐도우(Out of the Shadow)
5월 17일(수)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애창곡(Warhorses)
5월 18일(목)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Contrasts
5월 19일(금)	오후 7:30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내셔널 컬러(National Colors)
5월 20일(토)	오후 8: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족음악회_뮤직&이미지(Music&Image)
5월 21일(일)	오후 3: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무르나우 감독의 무성영화 <일출>에 의한 피아노 즉흥 연주의 밤
5월 21일(일)	오후 7: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음악적 이정표(Musical Milestones)
5월 22일(월)	오후 8: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차이니즈 오디세이(Chinese Odyssey)
5월 23일(화)	오후 8: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베토벤과 그 시절(Beethoven and his Time)
5월 24일(수)	오후 8: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음악과 문학(Music and Literature)
5월 25일(목)	오후 8: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비올라와 친구들(Viola and Friends)
5월 26일(금)	오후 8: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God Save the Queen.tet
5월 27일(토)	오후 3: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랜드 오브 라이징 썬(Land of the Rising Sun)
5월 27일(토)	오후 7:0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영재(Prodigies)
5월 28일(일)	오후 2:3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

🕒 5월 16일(화)~5월 28일(일)

📍 세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윤보선 고택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개·폐막 공연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가족음악회 전석 2만원, 고택음악회 전석 15만원

📞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무국

02-712-4879, 02-720-3933, www.seoulspring.org



별주부전의 고장 사천으로 떠나는 봄여행

연두빛 신록으로 온 산이 푸릇푸릇하던 지난 4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4월의 테마여행지는 '별주부전의 고장' 사천으로, 특히 이번 여행길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황선희, 안정숙 씨가 동행했다.

여행을 앞두고 비 소식이 전해졌으나 다행히 출발일 오전에는 날씨가 화창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두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국내 최초의 항공우주 박물관으로 유명한 사천우주항공박물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천의 문화유산해설사 정성숙 씨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지난 2002년 8월 개관한 항공우주박물관은 4만6,281㎡ 부지에 항공우주관과 자유수호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비행기 등 3,600여 점의 각종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야외전시장에는 우리나라 항공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각종 항공기가 일렬로 전시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경비행기 '부활호'에서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던 기종과 같은 B-29 폭격기,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전용헬기였던 H-19기,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 한국형 고등훈련기인 T-50 실물 등 시대별 다양한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대통령 전용기로 활약한 C-54 수송기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등장했던 C-123K는 직접 비행기에 올라 내부를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항공우주관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격퇴하기 위해 진주에서 만들어진 무동력 비행기 비치(飛車)를 비롯해 사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작된 '부활호'의 제작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3



4



5



6

1 2 사천우주항공박물관
3 4 5 6 선진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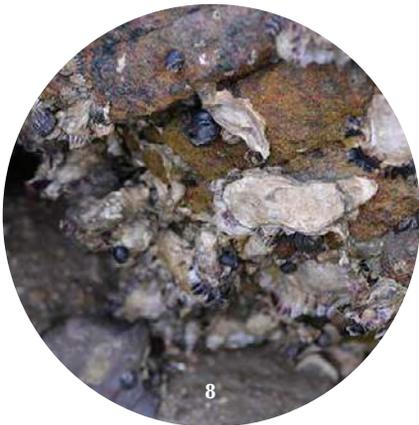
“신경준의 <여암전서> 책차제(策車制)에 따르면 비차를 만든 사람은 김제 사람인 정평구라는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왜병에게 포위된 읍성에 들어가 친구를 태우고 30리 바깥으로 날아가 왜적의 칼날을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것은 최초로 비행했던 라이트형제보다도 3백여 년 앞선 기록이나 아쉽게도 비차의 설계도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공우주관에는 비차 외에도 세계항공발달사를 정리한 패널과 각종 항공기 모형, 그리고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비행할 때 사용했던 한국형 우주음식과 우주복 등 우주탐험을 주제로 한 우주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항공우주산업의 꿈과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밖에 자유수호관에는 6.25전쟁 때 사용된 비행기와 탱크 등이 전시되어 있어 전쟁에 대한 관람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사천우주항공박물관을 나와서는 봄철 벚꽃 근각지로 유명한 선진리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사천만의 중간지점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된 평산성인 선진리성은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고려 시대부터 조창(전근대사회에 국가가 징수한 곡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다시 운송하기 위해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했던 창고)이 설치

되면서 주변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 장수 모리 요시나리가 토성 주변에 왜성을 쌓았고, 시마즈 요시히로, 다다쓰네 부자가 성의 수비를 맡았다. 이 선진리 성에서는 임진왜란 때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선조 25년(1592년) 사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제2차 사천해전으로 이 전투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거북선을 처음 사용해 적선 13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 하나는 선조 31년(1598년)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전시 중 오발로 탄약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일본군에 대패,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패전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8년, 시마즈 가문의 후손들이 성을 공원으로 정비하고 그 위에 조상을 기리는 석비를 세웠으나 해방후 마을 주민에 의해 파괴되었다. 현재 이 비석 터에는 한국전쟁 중 순국한 공군장병의 위령비인 총령비가 세워져 있으며 공원 내에는 이충무공 사천해전승첩비도 세워져 있다.

선진리성 인근에는 정유재란 당시 선진리 왜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결전을 벌이다가 희생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병사들의 무덤인 조명군총(朝明軍塚)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전사한 조선과 명나라 군인들의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군 승전의 증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교토 도요쿠니 신사 앞에 묻은 후 ‘미미즈카(耳塚)’, 즉 ‘이총(귀무덤)’이라고



했다. 조명군총 옆에 자리한 '이총(耳塚)'은 이역만리에서 떠도는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도요쿠니 신사 앞 이총의 흙 일부를 가져와 안치한 것이다. 이렇듯 선진리성과 조명군총, 그리고 이총에는 아픈 역사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오후 본격적인 비토섬 탐방에 앞서 재첩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사천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비토해양낚시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별학도를 연결하는 해안과 섬에 조성되어 지난해 8월 개장한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인공낚시터와 해상팬션 외에도 섬 주위에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탁트인 아름다운 남해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라도 같은 풍경에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을 나와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있는 비토섬으로 발길을 옮긴 회원가족들은 본격적인 비토섬 탐방에 나섰다.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목섬으로 구성된 비토섬은 모두 별주부전에 등장하는 토끼와 자라, 용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은 육지인 서포면과 비토교로 연결되면서 자동차로도 접근이 가능하나 썰물 때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면서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행히 물때가 맞아 회원 가족들은 바다 사이로 드러난 갯벌을 걸어볼 수 있었다.

사천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별주부전을 테마로 한 별주부전테마파크. 비토섬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비롯해 토끼가족상, 별주부전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놓은 디오라마,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별주부전테마파크에 도착하자 하늘이 점차 흐려진다. 산책로를 돌기 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황선희, 안정숙 씨와 아리랑 춤 배우기에 나섰다. 단원의 춤사위를 따라하던 회원들은 서로의 서툰 손

짓, 발디딤새에 연신 웃음이 터진다. 춤 강습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진다. 아쉽지만 테마파크 탐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아름다운 사천의 바다와 함께 했던 4월 테마여행은 그 탁트인 바다만큼이나 정기회원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7 8 9 비토해양낚시공원

10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지리산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06/09 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목화를 재배한 목화시배유지(木花始培遺地)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영남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대학자였던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 그리고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에담촌으로 떠나는 산청 초여름여행.

05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강경심(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우연미(남구 황령대로)
김성경(남구 분포로)	윤지현(해운대구 해운대로)
김혜진(남구 황령대로)	이병애(수영구 광안해변로)
류석일(부산진구 황령대로)	조혜진(해운대구 해운대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허옥희(부산진구 백양산로)

● 기존 회원

김길재(남구 우암로)	손순현(해운대구 청사포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송말남(연제구 중앙대로)
노현식(남구 동명로)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박은경(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임윤항(연제구 과정로)
석종명(남구 진남로)	황혜영(남구 황령대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6

(재)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2017 어린이날 특별 기획공연

키즈 테라피 에듀 콘서트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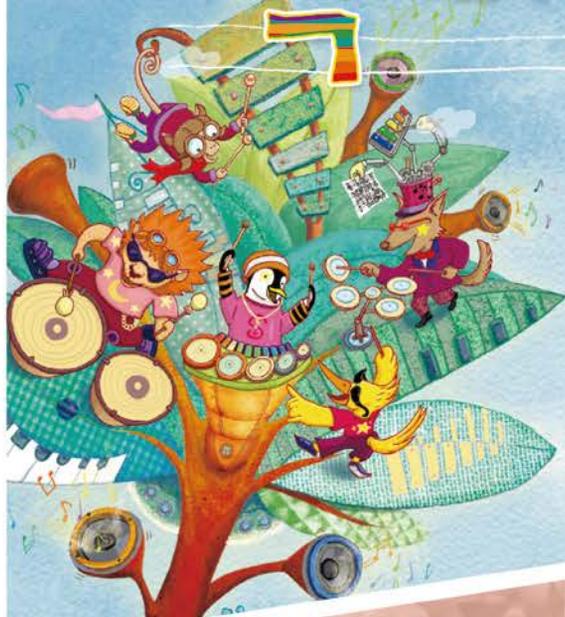
프사따구리음악회

|제작| 문화예술기획 함박우슴, Beatin |연출| 한상현, 조동준 |음악감독| 임준식

2017.5.5(금) 오전11시 | 오후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3만원 | S석 2만원 | 입장연령 만 36개월 이상



초효 콘서트

어버리와 함께하는

2017.5.6(토) 오후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5만원 | S석 3만원

여성 성악 팝페라 앙상블 벨라디바
바이올리니스트 KoN
국악예술가 최정아



SBS오케스트라 예술단장
김정택



'미련 때문에', '사랑의 미로'
최진희



'문 밖에 있는 그대'
박강성

2017 행복한 오월!

문화나눔 콘서트



지휘 전진



피아노 이승윤



피아노 이경미



더블베이스 정준용



드럼 김진훈

5.19(금)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30



소프라노 남순천



알토 손미숙



테너 김진영



베이스 최성규

PROGRAM

A little Jazz mass - Bob Chilcott

- ▶ 인생을 담은 합창
 - 알 수 없는 인생
 - 시를 위한 시
 -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5.22(월)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9:30



소프라노 박성희



알토 이유진



테너 최원갑



베이스 강병재

5.23(화) |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19:30



소프라노 최선희



알토 손미숙



알토 박성혜



테너 최준식



베이스 문동환

주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금정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문의 607-3115~6(부산시립합창단), 519-5661(금정문화회관), 749-7651(해운대문화회관), 419-5571(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독일 낭만음악의 거장들

Richard Wagner

Max Bruch

Johannes Brahms



지휘 장운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

Program.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46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68

2017. 5. 19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린 김다미



©(Music Friends) Jun-Young Lee

주 최 부산문화회관
문 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 매 www.bscc.or.kr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민24세이하) | 외국인 | 예체능동호회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View Plus

May 2017
vol. 305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방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2017 어린이날 특별 기획공연 '딱따구리 음악회' · 아버지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

(재)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딱따구리 음악회



가수 최진희



가수 박강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재)부산문화회관이 특별한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어린이 타악음악회 '딱따구리 음악회'를 마련한다. 지난 2004년 국내 최초 본격 유아 타악콘서트로 첫발을 내딛은 후 지금까지 20만 명의 어린이 관객을 동원한 '딱따구리 음악회'는 특히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처럼 흥미롭고 친근한 내용과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드럼, 글로켄슈필, 신디사이저 등 다양한 타악기가 빚어내는 타악양상블, 클래식과 동요를 새롭게 재편곡한 레퍼토리, 연주자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악기연주 등 지루할 틈 없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음악을 통해 상상력을 계발하고 교양과 EQ를 향상시켜주는 '키즈 테라피 에듀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딱따구리가 지휘하는 동물 음악대의 연주로, 신비로운 뮤직트리기가 있는 뮤직랜드로의 환상적인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운 친근하면서도 익숙한 동요와 클래식을 타악양상블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독일 작곡가 헤르만 네케의 춤곡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를 비롯해 미국적인 터키 음악의 풍취가 담긴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 르로이 앤더슨의 '타이프라이터', 글린카의 '무슬란과 루드밀라',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 어린이 관객과 함께하는 동요부르기과 우리

몸의 신체를 두드리며 타악기의 리듬을 연주해보는 바디뮤직, 리듬놀이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진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오후 3시에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줄 '아버지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가 펼쳐진다. SBS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있는 김정택 지휘자가 이끄는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KoN), 여성 성악가로 구성된 팝페라 앙상블 '벨라디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최정아, 여성보컬 트리오 '카메츠(Comets)', 가수 최진희, 박강성이 출연, 중장년층을 위한 가요와 민요뿐만 아니라 영화 주제곡, LED퍼포먼스 등 전 세대를 겨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족관람객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30여 년간 방송과 콘서트 현장에서 최고의 실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정택 단장은 인순이 '밤이면 밤마다', 전영록 '불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등 1980년대 '히트곡제조기'라는 명성에 걸맞게 300곡의 대중가요 및 뮤지컬곡 등을 작·편곡한 작곡자로도 유명하며, 최근 TV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 전설의 작곡가로 다시한번 주목받기도 했다.

일시 딱따구리 음악회 5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효 콘서트 5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5, 6057 **입장료** 딱따구리 음악회 R석 3만원, S석 2만원 효 콘서트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7 행복한 오월 '문화나눔 콘서트'



지혜원 전진



부산시립합창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2017 행복한 5월 '문화나눔 콘서트' 무대가 5월 한 달간 세 차례 펼쳐진다.

5월 19일 금정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2일 해운대문화회관, 23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등 3곳 문화회관 순회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5월 19일 금정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2017 행복한 5월 '문화나눔 콘서트' 첫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밥 칠콧의 '작은 재즈 미사(A litte Jazz mass)'를 비롯해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생상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김규환 '간다 간다 하더니' 등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등 이문세 메들리로 꾸며진다. 영국 합창음악의 대가 밥 칠콧(Bob Chilcott)의 '작은 재즈 미사'는 kyrie, Gloria, Sanctus, Benedictus, Agus Dei 등 5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미사곡으로, 전통적인 미사곡의 가사에 재즈의 매력적인 음악과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를 더한 아주 매력적인 합창곡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어 5월 22일 해운대문화회관, 23일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밥 칠콧의 '작은 재즈 미사', 이문세 메들리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19일 금정문화회관

밥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e Jazz mass)
멘델스존/노래의 날개 위에 _소프라노 남순천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_알토 손미숙
김규환/간다 간다 하더니 _테너 김진영
도나우디와/아름다운 그대 모습 _베이스 최성규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22일 해운대문화회관

밥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e Jazz mass)
정애련/달아 _소프라노 박성희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_알토 이유진
라라/그라나다 _테너 최원갑
토스티/최후의 노래 _베이스 강병재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23일 영도문화회관

밥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e Jazz mass)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_소프라노 최선희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_알토 박성혜
마스네/오페라 '베르테르' 중 '무엇 때문에 나를 깨우는가' _테너 최춘식
변훈/임진강 _베이스 문동환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일시·장소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5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입장료** 무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 독일 낭만음악의 거장들

지휘자 장윤성



바이올린 김다미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곡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가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지휘자 장윤성이 지휘하고 2012년 세계적 권위의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고한 힘과 장중한 멜로디로 가득한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민요풍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환상적인 감미로움으로 표현한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브람스 특유의 묵직하고 우수에 찬 정서가 매력적인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현재 음악의 도시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장윤성은 지난 199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뉘른베르크 심포니, 로마 심포니, 프라하방송교향악단 등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체코, 헝가리 등 유럽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한국정부가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에게 위촉한 교향곡 제5번 'Korea'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의 초연무대에서 지휘,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장윤성은 일본의 오사카 칼리지 오페라하우스 수석지휘자로 발탁된 후 베

르디 '리골레토', 푸치니 '나비부인', 브리튼 '한여름 밤의 꿈', 호네거 '잔다르크' 등을 지휘하며 오페라 지휘자로도 성공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장윤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서울시교향악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들려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학사, 석사,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지난 200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후 유럽과 세계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2010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 2011년 일본 나고야 무네즈구 국제콩쿠르 우승 및 오케스트라 단원 선정 특별상, 무네즈구 선정 특별상, 2012년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등 다수 콩쿠르 입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해 온 김다미는 현재 뉴욕주립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일시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춤, 인상(印象)

예술감독 김용철



지난해 부산시립무용단 김용철 예술감독 취임 후 선보였던 두 차례의 정기공연 '업경대',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으로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무용단이 5월 25일과 26일, 새로운 창작춤 '춤, 인상(印象)'으로 관객과 만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춤, 인상(印象)'은 중국 당나라 말기 시인 사공도(司空圖)의 시학서(詩學書)인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을 모티브로, 24개의 시품 중 6개의 시품을 춤사위로 옮겨 전통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중국 시학(詩學) 가운데서도 난해하면서도 논쟁적인 시학서로 꼽히는 '이십사시품'은 시에 관한 24가지 풍격(風格·직관적 이고 상징적인 말로 시와 시인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을 표현한 '시로 시를 말한' 시학 텍스트로, 지난 1,000년간 시, 회화, 서예 등 동양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이십사시품' 중 전아(典雅), 섬농(纖穠), 세련(洗鍊), 웅혼(雄渾), 소야(疎野), 광달(曠達)을 주제로, 6개의 풍격(風格)을 '움직이는 시'로 형상화하여 '춤의 인상(印象)'을 그려낸다.

김용철 예술감독은 한국 전통춤에 내재된 격조를 창작춤의 미학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제의무용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며 더불어 현대의 무용

이 추구하는 동시대성을 미학적으로 수용하고자 줄타기, 태권도, 힙합과의 색다른 만남을 시도, 전통춤이 가진 원형의 목적함을 창작춤의 신선한 매력으로 변주시켜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외에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손영일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손영일무용단은 그동안 현대춤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연, 창작활동을 통해 관객과 꾸준히 만나왔으며, 2009년 제18회 부산무용제 대상, 안무가상, 2015년 제24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하고 그해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제1막 -

- 1장 전아(典雅)-법도에 맞아 아름답다
- 2장 섬농(纖穠)-섬세하고 아름답다
- 3장 세련(洗鍊)-씻어내고 연마한다

- 제2막 -

- 4장 웅혼(雄渾)-웅장하고 혼연하다
- 5장 소야(疎野)-활달하여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 6장 광달(曠達)-내용의 도량이 너그럽고 크다

일시 5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가족할인 이벤트 3매 구매시 1매 무료 증정)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관현악 축제



지역의 전통예술발전과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국악관현악 축제'가 5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각 시도의 실력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출연,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경북도립국악단이 출연, 흥겨운 창작 국악관현악 축제를 펼친다.

첫 무대는 단장 이지영이 이끄는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관객과 만난다. 지난 1998년 가야문화의 역사를 지닌 김해에서 창단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립 가야금연주단으로, 가야금 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唱)과 가야금이 어우러지는 가야금병창 '새타령'을 비롯해 가야금의 힘찬 리듬감과 색채감이 강조된 가야금 4중주 앙상블인 신창렬 창작곡 '꽃섬',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비행을 가야금 오케스트라로 표현한 토마스 오스본의 창작곡 '새들의 비행'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상임지휘자 김중섭이 이끄는 경북도립국악단의 무대로, 민요 '경북궁타령'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25현가야금의 화려한 기교로 표현한 김계옥의 25현가야금협주곡 '궁타령의 멋'과 강원도민요인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정선아리랑'을 관현악법적으로 접근한 박한규의 창과 관현악 '강원아리랑', 우리에게도 친숙한 국악가요 '쑥대머리, 너영나영, 아리

오'를 들려준다. 지난 1992년 창단한 경북도립국악단은 그동안 '악·가·무(樂·歌·舞)'를 고루 갖춘 국악단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기획과 창의적인 레퍼토리 개발로 창작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한다. 지난 1984년 창단 후 전통음악의 계승 및 창작음악 개발에 힘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호주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연주회에서 격조 있고 품격 높은 우리음악을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5년 제3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인 김선 작곡 '축제의 향연'과 거문고 명인 故 한갑득 선생이 평소 즐겨 타던 짧은 가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한주화 편곡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협주곡',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를 재구성, 더욱 흥겨운 작품으로 편곡한 이준호 편곡 '팔도민요 연곡'을 들려준다. 한국거문고앙상블 회원 주윤정,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소정이 협연자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일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입장료 전석 5천원(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Ⅲ - 푸치니 편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푸치니 편'이 5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 리더 조운범의 해설, 중국 톈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로 있는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허동권, 김충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3월 '베르디', 4월 '바그너'에 이어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대가로 꼽히는 작곡가 '푸치니'를 만날 수 있다.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상반기 마티네 웰빙콘서트를 이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은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강사, 한국 100인의 강사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해설음악회의 명강사로 유명하다.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백진현은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MM), 브룩클린음악원(PGD), 하트퍼드대학교 음악대학원(AD), 러시아 Far Eastern 국립 예술대학원(DMA)을 졸업하고 그동안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교향악단 등을 지휘했으며, 2007 전국교향악축제 최고지휘자 선정 '오늘의 음악가상'을 수상했다. 마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및 교

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백진현은 현재 동서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박지현은 한양대학교 성악과,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득점 수석졸업 및 조교과정 이수, 이태리 발세지아 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이태리와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전문성악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캄브라소 국립음악원, 아스콜리베체노 국제 아카데미, 페루지아 시립음악원 합창지휘과를 졸업한 테너 허동권은 '그동안 오페라 주역 및 한·이 수교 백주년 기념미사 솔리스트(이태리 로마), 바티칸 교황청 솔리스트 공연, 바티칸 대사관 초청 공연 솔로, 루마니아 국립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조바끼노 포르짜노 아카데미 디플롬,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테너 김충희는 600여 회가 넘는 국내외 오페라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독일 튜링엔 주 최고의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김충희는 현재 부산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라보엠', '서부의 아가씨', '토스카', '잔니 스키키', '투란도트'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일시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PLAY
OCEAN
FESTIVAL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의 축제

2017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36

1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새로운 콘셉트로 운영되던 '콘셉트 연극제'에서 과감히 탈피, '유희, 해양, 축제'라는 새로운 테마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의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시민들이 보다 활기찬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 한 곳에 몰려있는 센텀시티와 광안리 일대로 공연장소를 옮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멕시코, 그리스, 일본, 미국, 콜롬비아, 한국 등 6개국 6개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초청프로그램과 국내외 해외극단의 협업으로 마련되는 레지던시 공연, 거리극 경연프로그램인 '다이나믹 스트리트(Dynamic Street)',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청 프로그램으로는

2017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인 연희단거리패의 '길 떠나는 가족'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서커스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 BRAVISIMO '텅 빈 마음',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대표이자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로 있는 연출가 주혜자가 이끄는 원도심거리예술공동체 '안네의 일기', 샤프로와 도쿄의 연극인들로 구성된 연극기획운영단체인 일본 HAM PROJECT 'Karakuri Nude', 그리고 폐막작인 그리스 극단 IDEA '오이디푸스' 등이 관객과 만난다.

개막작인 연희단거리패의 '길 떠나는 가족'은 화가 이중섭의 삶의 여정과 예술혼을 담은 서사극으로, 이중섭의 그림을 오브제와 배우들의 움직임, 음악적 리듬으로 형상화시키면서 한국 현대극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폐막작인 극단 IDEA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라는 주제를 배우들의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개막작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폐막작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레지던시 공연으로는 다양한 장르 간의 결합으로 창작의 경계와 틀을 넘어 관객들에게 연극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다국적 극단 Tabula RaSa(미국·콜롬비아·한국) 'April의 겨울'을 선보인다. 이밖에 지난달 열린 제35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소향씨어터에서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다시 오르며, 원도심거리예술공동체의 '안네의 일기'는 시청각 장애우를 위한 자막 및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2



3

- 1 멕시코극단 BRAVISIMO '텃 빈 마음'
- 2 한국극단 연희단거리패 '길 떠나는 가족'
- 3 그리스극단 IDEA '오이디푸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다이나믹 스트리트(Dynamic Street)'은 부산국제연극제의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고 월드 페스티벌(Go World Festival)'과 '다이나믹 프린지(Dynamic Fringe)'를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광안리를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극 공연으로 펼쳐진다. 연극이 낯설었던 시민들에게 '연극=극장, 무대 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한 예술장르로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출품된 46개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작품이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광안리 해변에서 본선경연을 펼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열띤 경연의 장 '10분 연극제'가 5월 24일과 25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일반부와 대학전 공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관객과 아티스트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아티스트 토크'는 초청공연 관람 후 마련된다.

<2017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주요일정>

2017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식

5월 19일(금) 오후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한국극단 연희단거리패 '길 떠나는 가족' [개막작]

5월 20일(토)~21일(일) 오후5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화가 이중섭이 저승길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중섭의 삶의 여정과 예술혼을 짚어보는 작품으로, 이중섭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이, 꽃, 물고기, 게, 나비, 새, 소 등을 배우들의 오브제와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면서 '미술의 연극화'에 성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Tabula RaSa(미국·콜롬비아·한국) 'April의 겨울' [레지던시 공연]

5월 20일(토)~22일(월) 오후7시30분 KNN시어터

다이버, 댄서, 대필작가.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작품 속 인물들은 연쇄살인, 인신매매라는 어두운 미로 속을 향해 걷는다. 인물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서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극단 BRAVISIMO '텃 빈 마음'

5월 22일(월)~24일(수) 오후7시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광대, 서커스, 댄스와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무대장치 기술과 융합하여 극중 인물 및 이야기 구조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해온 BRAVISIMO가 장님이 되어버린 광대 블랑코와 친구 아우구스토의 모험 이야기를 다채로운 서커스쇼로 풀어낸다.

한국극단 원도심거리예술공동체 '안네의 일기' [베리어프리 특별공연]

5월 24일(수)~26일(금) 오후7시30분 KNN시어터

'안네의 일기'는 13살 소녀 안네가 '은신처'에 숨어 살며 2년 뒤 나치에게 발각되어 끌려가기 전까지 '키티'라고 이름붙인 노트에 쓴 편지형식의 기록이다. 암울했던 나치 치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안네의 세상이 부산국제연극제에서 펼쳐진다.

일본 삿포로 함 프로젝트 'Karakuri Nude-아득히 먼, 네게로'

5월 25일(목)~26일(금) 오후7시30분 소향씨어터

가까운 미래, 생각하는 채굴용 로봇인 '제로스케'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가 궁금하다. 징병당한 그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며, 첫사랑이자 인간인 '리코'를 그녀의 남편 '켄토'로부터 구해내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점차 살육기계무기로 변해가는데...

그리스극단 IDEA '오이디푸스' [폐막작]

5월 26일(금) 오후7시30분, 27일(토)~28일(일) 오후5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오이디푸스 신화'를 소재로, 추방받던 영웅이었지만 정작 신의 손에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비극의 운명을 신체적인 움직임과 공중에 매달린 천, 끊임없는 음악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5.19(금) / 5.28(일)

- 관람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소향씨어터, KNN시어터, 광안리 일대 등
- 티켓가격 | 초창작 1층 2만5천원, 2·3층 2만원, 레지던시 공연 전석 1만원
- 관람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BIDF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부산愛 물들다! 춤으로 通하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부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2017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세계적인 행사의 이름에 걸맞게 예술적 수준과 대중성을 겸비한 국내외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부산국제무용제는 2017년 올해 '부산愛 물들다! 춤으로 通하다!'라는 주제로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가나, 대만, 독일, 라트비아,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프랑스, 헝가리 등 총 15개국 46개 단체 56개 작품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공식초청작에 있어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기존 현대무용, 발레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속, 전통무용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해외공식초청작이자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체코 Prague Chamber Ballet의 'Mystery of Time'은 2016~2017 Prague Chamber Ballet의 신작으로 독특한 의상과 무대연출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 Nadine Bommer Dance Company의 'InvisiBALL'은 축구 경기를 모티브로, 동작들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야외무대와 아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이다. 가나 Dzenbil African Percussion Cultural Group은 리듬 타악기와 가나의 전통춤을 선보이는 'Fume Fume-DANCE'를 무대에 올린다.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 민속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20여 명의 무용수와 악기 연주자들이 어우러져 신명 넘치는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헝가리의 전통춤을 소개하는 Balassi Folk Dance Ensemble은 무대 공연 외에도 관객들과 함께하는 헝가리 전통춤 강습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은 6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려 젊은 안무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무용제 개막에 앞서 부산국제무용제를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5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 출신의 유명 발레스타들이 한자리에 함께하는 '부산을 빛낸 세계발레스타전'이 펼쳐진다. 국립발레단 주역을 거쳐 파리오페라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남자무용수로 화제를 모았던 김용걸과 러시아 키로프발레단, 루마니아 국립발레단을 거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원국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발레스타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정영재, 유니버셜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민과 김명규, 전호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무용수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 김용걸은 그가 안무한 창작발레 '레 무브망'을 무대에 올리며, 이원국은 '돈키호테 그랑파드되'를, 정영재는 '탈리스만 파드되'를 선보이는 등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창작발레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5월 19일에는 김해공항 국내선에서 찾아가는 홍보공연이 펼쳐지며, 무용제 기간 동안 공식초청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즉흥댄스'도 올해 펼쳐진다. 또, 부산국제무용제에 참가하는 해외 무용단체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하는 스쿨투어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 1 5 체코 Prague Chamber Ballet
- 2 헝가리 Balassi Tancegyuttes
- 3 이스라엘 Nadine Bommer Dance Company
- 4 라트비아 Dance grope 'Perle'



일시 및 장소

6월 2일(금)-6일(화)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티켓가격

무료(부산을 빛낸 세계발레스타전 VIP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전석 1만원 / 폐막식 및 폐막축하공연 전석 2만원)

문의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프로그램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찾아가는 홍보공연
5월 19일(금) 오후 12:30 김해공항 국내선 대합실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홍보공연 '부산을 빛낸 세계발레스타전'
5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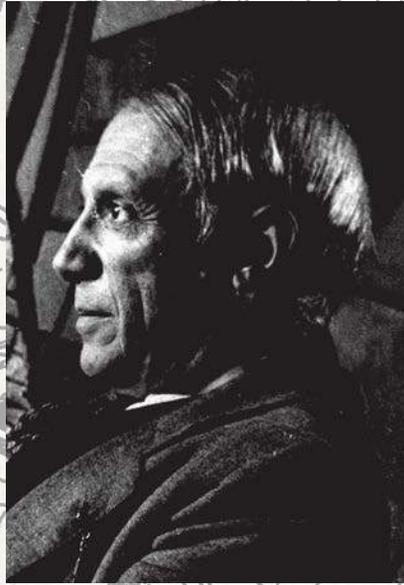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6월 2일(금)-6월 4일(일) 오후 6: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6월 5일(월)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및 폐막축하공연
6월 6일(화)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PICASSO AND HIS PASSIONS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



3.14 (화) - 6.6 (금) 부산 F1963

- 티켓가격 | 성인(만19세~64세) 1만 5천원
청소년(만13세~18세) 1만 2천원
어린이(만3세~12세) 1만원
- 관람문의 | ㈜이애프엔터테인먼트 070-8805-9219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수요일은 오후 8:00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40

“예술은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들을 막아내는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Art is not made to decorate rooms. It is an offensive weapon in the defense against the enemy.”

-1943년 3월 24일, Les lettres françaises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부산을 찾는다. 6월 6일까지 부산 F1963(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에서 열리는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전은 경이로운 에너지와 참신한 기법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했던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피카소의 다양한 미술 기법과 특유의 입체성으로 표현된 판화작품에서부터 도예작품, 유화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회귀작과 개인 소장품 등 3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아시아 및 유럽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진품으로 구성된 전시로, 20세기 정신을 독창적이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방식으로 묘사한 입체주의 최고의 거장 피카소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전은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총 10곳의 주제관으로 꾸며졌다. ‘타로마키아(투우의 기술)’를 주제로 에칭화 27점을 선보이는 A관을 시작으로 보이는 것을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한 여인의 초상화가 전시된 관까지 각 전시장별 차별화된 전시는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전시관 안내>

A관 타로마키아(Tauromaquia, 투우의 기술)

1957년 투우에 대한 고전 논문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투우의 전통을 표현한 에칭화 26점 전시.

B관 바르셀로나 컬렉션 & 곡예사 컬렉션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청색시대부터 장밋빛시대, 그리고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르셀로나 컬렉션’과 화려한 무대에 가려진 곡예사의 삶의 애환을 연인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삽화 14점 전시.

C관 곤고라의 20편의 시

1948년에 제작된, 스페인 시인 곤고라의 시를 매우 좋아했던 피카소가 그의 시를 직접 새기고 삽화를 그려넣은 에칭화 41점 전시.

D관 라 셀레스틴

페르난도 데 로자스가 지은 희극 ‘Calisto y Melibea’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 속 주인공 셀레스틴의 이름으로, 이야기 속 질투와 죽음, 육체적 사랑을 주제로 표현한 에칭화 68점 전시.

E관 피카소의 작업실에서 & 볼라드 컬렉션

1955년 피카소와 그의 두 번째 부인 재클린 로크가 함께 살았던 집이자 작업실이 위치한 ‘라 칼리포니’에서 완성한 작품들과 1927년부터 10년간 수집가 볼라르와의 계약으로 제작되어 피카소 판화 작품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볼라드 컬렉션’의 작품 전시.

F관 황소와 투우사

투우의 세계에 매료된 피카소가 1957년과 1959년에 작업한 석판화와 에칭 작업의 집대성으로, 투우를 테마로 한 흑백과 다색 석판 43점 전시.

G관 카르멘 컬렉션

1845년 프로스페르 메리메가 쓴 소설 ‘카르멘’을 설명하기 위한 피카소의 삽화 작품으로, 여성과 남성의 얼굴, 안달루시아 의상과 황소 머리 등을 묘사한 음각판화 35점 전시.

H관 삼각모자(Le Tricorne)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의상과 투우 장면이 들어가는 세로게이 디아길레프의 창작발레 ‘삼각모자’의 무대세트 및 의상을 디자인한 에칭화 32점 전시.

I관 여인의 흉상 2

단순한 선과 사각형, 원 등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표현한 여인의 초상화 전시.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교향악축제' 일곱번의 커튼 콜



◆ 허순길 성현아이엔 회장

이 글은 서울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3일째 무대에서 연주했던 곡에 대한 음악적 전문가의 리뷰라기보다는 내가 20여년만에 들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객석의 반응을 전해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 되겠다.

'엘 시스테마'가 배출하여 세계무대에 떠오르고 있는 젊은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 고메스'가 객원 지휘한다는 사전 정보를 갖고 80명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두 곡 중 처음으로 연주한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였는데, 이곡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는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긴 하나 클래식 전문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곡인데다가 큰 기복없이 약간은 밋밋하게 또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같은 리듬으로 '사색하기 좋은 곡' 혹은 '수면곡'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전 악장에 걸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훌륭한 연주에도 불구하고 객석의 폭발적 환호는 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미션 후 두 번째의 차이콥스키 '만프레드 교향곡'은 상황이 달랐다. 하프 두대와 후열의 퍼커션, 우측 끝 베이스가 보강 되어 간간히 비어있던 단원석에 연주자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만프레드'가 시작되자 1악장부터 객석으로 전해오는 느낌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니 4악장까지 이어지는 1시간의 연주는 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빈틈없는 해석과 빼어난 연주력으로 객석을 숨실 틈 없이 만들어 놓았다.

곡에 대한 해설이야 두 곡 모두 스마트폰으로 뒤져보면 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 클래식 전문가들은 이미 모두를 꿰뚫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전통의 '교향악축제'가 1% 남짓의 전문 클래식 애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이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클래식을 처음 들어보는 이들의 숨통까지 조여놓고 말았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 할까? 전 단원들의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과 기교, 지휘자와 함께하는 호흡은 물론 풀오케스트라의 위용과 레파토리가 주는 감동의 위력 때문인지 4악장이 끝난 순간 2,000여 객석은 문자 그대로 환호와 열광으로 뒤집혔다. 나 역시 음악을 좋아하고 클래식도 20여년 즐겨 들었으나 아직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평하고 이해하기엔 여러가지로 부족한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클래식음악 또한 개인적인 선호와 곡에 따른 호불호가 서로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으며 지루한 곡은 정말 짜증날 정도로 답답하고 듣기 불편한 곡들도 많다. 그러나 그날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만프레드 교향곡'은 확연하게 달랐다. 같은 예술의전당에서 30~40만 원의 티켓값을 지불하고 보았던 '뉴욕 필'이나 '베를린 필'의 연주를 들을 때도 느끼

지 못했던 감동과 객석의 분위기가 악장이 바뀔 때 마다 증폭되었던 것은 왜였을까? 어떻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뉴욕 필'이나 '베를린 필' 등에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10여 년 전의 기억이었다 하여도 나에게겐 엄연한 사실로 다가왔고 그날 함께 객석에 앉아 있던 관객들 또한 나의 느낌에 동의하듯 거침없이 환호하며 끝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그러니 연주는 끝났지만 단원들은 미동할 수도 없고 한 번 두 번도, 세 번이나 네 번도 아닌, 이미 무대를 떠난 지휘자를 식지 않는 환호와 함께 일곱번을 다시 불러 냈다. 일곱 번의 커튼 콜! 앵콜을 연호하는 청중들의 함성도 끊이지 않았지만 끝내 앵콜 연주는 없었다. 워낙 '만프레드'가 무거운 대곡이기도 하였지만 객원으로 지휘봉을 잡은 낯선 외국인 지휘자의 입장에서 앵콜곡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까마득한 부산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 볼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향상된 모습에 놀라움을 동시에 느끼며 돌아왔던 귀갓길에서도 그 감동은 이어졌고, 선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다시 생각하게 된 정말 멋지고 황홀한 무대였다.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 고메스'와 혼신을 다해 멋진 선율을 객석에 선사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7 노자와 베토벤



◆ 김윤선 음악평론가

클래식, 철학을 듣다 '2017 노자와 베토벤'이 지난 4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2017 노자와 베토벤'은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마련한 기획공연이다. 총 4회로 이뤄진 이 공연은 인간의 감성적 느낌을 매개로 '희-로-애-락' 중 첫 번째로 인간의 기쁨(喜)을 다뤘다.

'노자와 베토벤'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가 2015년부터 철학과 음악이 만나 운명, 영웅, 몽상, 희망 등의 주제로 음악회를 열면서 지역 음악계에 많은 화제를 모아왔다. 이 공연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철학이 단지 상념과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위로와 대안을 전달하여 지성적 높이를 채우는 밀도 있는 콘서트이다.

인간의 고독에서 비롯하여 우주적 차원의 경지로 도달하려는 니체 철학의 영감과 정수를 담은 R.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오프닝으로 응집된 힘과 집중력을 더하며 연주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곡인 '코리올란 서곡'은 베토벤의 강인한 의지와 기백을 보여주는 기에 충분한 곡으로 삶에 있어 기쁨과 강한

생명력을 전달받는 무대였다.

두 번째 연주된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은 봉건영주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길 갈망했던 베토벤이 바라는 시민사회를 열망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교향곡이다. 철학적 사고를 사유하며 음악이 주는 감동 속에 몰입해 담담히 연주한 '영웅교향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찬 감동을 느끼게 했다.

연주 후반부는 슈만의 레퍼토리가 무대에 올랐다. 슈만의 서곡, 스케르초와 피날레 작품 52는 슈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의 시기인 클라라와 결혼한 이듬해에 쓴 행복한 가정을 꾸린 안정기의 작품이다. '교향곡 3번 작품 97'은 드레스덴에서 뒤셀도르프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며 얻은 에너지와 독일인들의 젓줄인 라인 강을 바라본 정서를 표현, 전반부 베토벤의 레퍼토리 못지않은 기백이 넘치는 사운드를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는 혼신을 다해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연주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론의 힘은 실천에서부터 나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들은 음악을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에 두었다. '흥어시 입어레 성어락(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인격은 시를 통하여 일어나고, 예로 확립하고, 음악으로 완성한다'는 공자의 말이다.

인간이 보다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경지에 이르는 것은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감동이란 인간만이 느끼는 특권이기에 감동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매 순간 의문을 던지며 성숙된 인격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자와 베토벤은 관념적 언어로 표현된 철학자의 사고를 청중이 음악으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마에스트로 오충근은 철학자의 생각을 음악가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렇기에 그는 음악가로서 삶을 생각하고 철학을 담은 음악으로 부산시민의 시선의 높이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철학, 인문학, 천문학보다도 우월한 것이 예술이며 음악이기에 물질만능주의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닌 성숙된 선진문화의 부산시민이 되기 위해서 폭넓은 사유 안에 음악을 채워나가야 한다.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한 중심에 철학의 힘을 품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가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이 숨어 있기도 하다.

노자와 베토벤이 지역문화의 아이콘으로, 우리나라와 우리사회에 음악이 예술로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날까지 부산만의 콘텐츠로 유유히 이어지길 바란다.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 장세중 부산국제연극제 자문위원

부산시립극단 제58회 정기공연으로 김광택 작 '아비'를 광종필 연출로 무대에 올렸다. 극의 줄거리는 우리들 가정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평범한 소재이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어렵게 모아온 전 재산을 사회(학원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삼남매를 불러놓고 자기의 뜻을 알린다.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에겐 삼남매 외에 첫째 아들이 있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아로 어려운 살림에 연탄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버지는 참척의 회한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장애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원재단에 기부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존중해야 함에도 자식들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아버지에게 기부를 번복하도록 애원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마침내는 협박까지 하게 된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다. 재산 때문에 벌어진 부모와 자식들간의 갈등 문제, 무겁고 심란스러우면서도 어두운 상황을 작가는 가볍게 그리고 밝게 희극적으로 풀어간다. 코메디는 단순히 웃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통찰하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서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코메디는 웃음 속에

예리한 비판이 번득여야 하고 잘못된 판단이나 논리적 모순을 풍자하기도 한다.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소갈머리없는 자식들, 물색없는 여편네, 간살을 떠는 며느리를 보는 아버지의 눈길은 애오라지 애뜻한 부정(夫情)으로 가득해 보였고 그 모습은 오묘했다. 아버지 되기는 쉽지만 아버지 답기는 어렵다는 말처럼 아버지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좋은 드라마는 관객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좋은 희곡은 생활의 경험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미문(美文)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진솔한 문체여야 한다. 경험의 무게감이 없는 허황되고 감성적인 미사여구는 생경스럽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광택 작품은 정제된 언어로 밀도 높은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연출한 광종필은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인 대상 및 연출상을 수상한 연출력이 뛰어난 연출가이다. 그는 기존의 작품을 재해석하되 동시대적으로 실감나는 무대를 창출한다. 그가 만든 공연은 런타임이 길어도 관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리스극이든 현대극이든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능력이 탁월한 연출가이다. 광종필 연출가는 본래 작품구성의 허술한 틈새를 촘촘히

메워가는 연출로도 돋보인다. 특히 담담한 스토리라도 광종필 연출가의 손을 거치면 색깔있는 이야기로 변하고 관객들로부터 '연극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다'라는 반응과 함께 머리로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은 누군가의 삶을 훑쳐보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주인공 '아비'역을 한 배우 이혁우는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처럼 작품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하고 헛갈리게 하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다. 같은 대사라도 그가 던지면 귀에 착 감겨온다. 속물적이고 용렬한 자식들에게 회색빛 절망으로 오염하는 연기는 뜨겁게 목울대를 치밀게 한다. 비 맞은 수탉처럼 후줄그레하고 남루한 그의 모습에서 메마르고 탁하게 갈라지는 곤혹스러운 목소리는 처연했다. 감정의 파도를 다스린 뒤 섬에 홀로 남겨져 있는 듯 격렬한 고독의 표정연기는 가슴에 소연한 바람을 불게 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좋은 드라마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공연에서 '육의 티'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재미와 웃음의 용량은 넘치는 반면 진한 감동이 희박한 점이었다. 이번 작품 '아비'는 작품과 연출과 연기가 하모니를 이룬 좋은 공연이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박애진, 류찬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5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박애진 607-6222, 010-2284-3755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애진, 류찬미가 함께하는 듀오 콘서트. 박애진은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 학부 및 전문연주자과정, 레오폴트 모차르트 첼트룸(Leopold-Mozart-Zentrum Augsburg)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류찬미는 미국 서든일리노이 대학교 음대 최고장학생 입학, 루즈벨트대학교 음대(B.M),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음대 대학원(M.M)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애진, 류찬미의 듀오연주로 들려주는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비롯해 바흐의 곡들로 꾸여진다.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2번 다단조 BWV 813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사장조 BWV 1048
바흐/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1권 제2번 BWV 847 등

전문예술법인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 20만원,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074-0366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육성하여 당당한 음악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6번째 정기연주회.

세계가 주목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고 있는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7년 기획재정부와 부산문화재단의 국제문화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러시아 크림반도 4개 주요도시에서 투어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월드브리지 오케스트라 그룹 총괄 지휘자이자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박성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파리시립교향악단 수석, 파리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뱃상 루카스, 월드브리지 신인 연주자 시리츠 세 번째 주인공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유정의 협연으로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재)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2017 어린이날 특별 기획공연 '딱따구리 음악회'

일 시 5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5, 6057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어린이 타악음악회 '딱따구리 음악회'. 지난 2004년 국내 최초 본격 어린이 타악콘서트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지금까지 20만 명의 어린이 관객을 동원한 '딱따구리 음악회'는 특히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처럼 흥미롭고 친근한 내용과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드럼, 글로켄슈필, 신디사이저 등 다양한 타악기가 빛내는 타악양상블, 클래식과 동요를 새롭게 재편곡한 레퍼토리, 연주자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악기연주 등 지루할 틈 없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음악을 통해 상상력을 개발하고 교양과 EQ를 향상시켜주는 '키즈 테라피' 에듀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어버이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

일 시 5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55, 6057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줄 '어버이와 함께하는 효 콘서트'. SBS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있는 김정택 지휘자가 이끄는 SBS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KoN), 여성 성악가로 구성된 피페라 앙상블 '벨라디비',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최정아, 여성보컬 트리오 '카메츠(Comets)', 초대가수 최진희, 박강성이 출연, 중장년층을 위한 가요와 민요뿐만 아니라 영화 주제곡, LED퍼포먼스 등 전 세대를 겨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족관람객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정택 단장은 30여 년간 방송과 콘서트 현장에서 최고의 실력과 화려한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우리아트 920-9545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8년 9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된 부산시티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그 해 소외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전문 민간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비롯해 교향곡 제35번 '하프너' 등 모차르트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박성은
- 피아노/이정하
- 테너/조운환

2017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5월 12일 금요일 오전 11:00(단체관람),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김옥련발레단 626-9486



창작발레 활성화와 폭넓은 관객개발로 부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발레단체인 김옥련발레단이 매년 5월 선보이는 감동과 교훈이 있는 가족발레 2017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의 동화를 창작발레로 탄생시킨 '거인의 정원은' 어린이를 위한 발레공연이 전무했던 지난 2002년, 차별화된 창작가족발레로 첫 선을 보인 후 그동안 16차례 무대에 오르면서 국내 최초, 최장기 가족발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 안무/김옥련
 - 연출/방도용
 - 대본/유상환
 - 출연/이동희, 유은주, 김혜정, 박상규, 전혜윤, 강처즈(Gantsoo), 허준원, 서정애, 허성준, 김승환, 신선경, 이이슬, 숲속어린이발레단

Program Guide

시민과 함께하는 2017 평화통일콘서트

일 시 5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대중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의회가 마련하는 2017 평화통일콘서트.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평화통일콘서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로, 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홍성택이 지휘하는 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와 한국 뮤지컬 대표 배우 최정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테너 이철성, 평양국립교향악단 최연소 수석연주자로 활동하다 지난 2001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의 4인조 성악앙상블 '벨트라우음'이 출연, 대중과 통일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5~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1990년대 들어 독일 출신의 가장 마케 아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천의무봉의 매끄러운 하모니'라는 찬사를 받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후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 다니엘 하딩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지휘 아래 완벽한 사운드를 구축하며 전 세계 평론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지휘자 미코 프랑크의 지휘, 강렬한 타건과 화려한 테크닉의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으로, 사벨리우스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녹턴',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을 들려준다.

BNK금융그룹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6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cafe.daum.net/
johnlee1004 관람 응모 후 추첨 통해 개별통지)
문 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6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유심, 허미경,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정태성, 바리톤 김은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아리아의 밤으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서곡
도니체티/오페라 '루치아' 중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드보르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바치는 노래'
푸차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김동진/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수곡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 독일 낭만음악의 거장들

일 시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곡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지휘자 장윤성이 지휘하고 2012년 세계적 권위의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송고한 힘과 장중한 멜로디로 가득한 비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민요풍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환상적인 감미로움으로 표현한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브람스 특유의 묵직하고 우수에 찬 정서가 매력적인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 지휘/장윤성
● 바이올린/김다미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 흥보공연 부산을 빛낸 세계발레스타전

일 시 5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6월 부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인 '2017년 제13회 부산국제무용제(BIDF)'를 앞두고 부산 출신의 유명 발레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련하는 '부산을 빛낸 세계 발레스타전'. 국립발레단 주역을 거쳐 파리오페라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남자무용수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김용걸의 '레 무브망'을 비롯해 러시아 키로프발레단, 루마니아 국립발레단을 거친 이원국의 '돈키호테 그랑 파드되',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정영재의 '탈리스만 파드되',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민과 김명규, 전호진 등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부산 출신 유명 발레스타들의 클래식과 창작발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춤, 인상(印象)

일 시 5월 25일(목)~26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가족 이벤트 3대 구매시 1대 무료 증정)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새로운 창작춤 레퍼토리 '춤, 인상(印象)'. 중국 당나라 말기 시인 사공도(司空圖)의 시학서(詩學書)인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을 모티브로, 24개의 시품 중 6개의 시품을 춤사위로 옮겨 전통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십사시품' 중 전아(典雅·법도에 맞아 아름답다), 섬능(纖穠·섬세하고 아름답다), 세련(洗鍊·씻어내고 연마한다), 웅혼(雄渾·웅장하고 혼연하다), 소야(疎野·활달하여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광달(曠達·내 용의 도량이 너그럽고 크다는 주제, 6개의 풍격(風格)을 '움직이는 시로 형상화하여 '춤의 인상(印象)'을 그려낸다.
● 예술감독/김용철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손영일무용단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제31회 청소년 무용예술제

일 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부산 예술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축제 제31회 부산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무용예술제'. 부산예고, 삼성예고, 남일중, 새싹발레단 등 부산지역 11개 학교, 무용단, 무용학원과 청소년무용경연대회 고등부, 중등부 대상 수상자들이 출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임춘(한국무용·부산예고), NEW 개미와 배짱이(발레·비가노바무용학원), Blue bomb(사회무용·삼성예고), 시계(발레·볼쇼이발레아카데미), 우리하나(사회무용·남일중), 건지노의 꽃 축제(발레·새싹발레단), 교방굿거리춤(한국무용·안희영무용단), 원치 않던 삶(현대무용·부산예고), 흐름(사회무용·상당중), P.O.S(사회무용·광우여중), 돈키호테(중에서(발레·부산예고))

Bella voce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Bella voce 합창단
010-5500-3086, 010-2503-9705



지난 2014년 1월 창단한 후 화음과 성악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색 있는 혼성4부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 온 Bella voce 합창단의 4번째 정기 연주회.

Bella voce 합창단은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부산시민 대합창, 평화 물결 2016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Bella voce 합창단은 지난해 6월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통해 국내 음악평론지 'MUSIC REVIEW(2016. 7월호)'로부터 '벨라보체 합창단의 음색은 개성이 있고 진지함과 열성을 볼 수 있었다~ 오페라 연주에서 그 매력은 폭발적인 음악성으로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게스트/음 챔버오케스트라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악관현악 축제

일 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지역의 전통예술발전과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각 시도의 실력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출연,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수석지휘자 이정필)과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단장 이지영), 경북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김종섭)이 출연, 흥겨운 창작 국악관현악 축제를 펼친다.

프로그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가야금병창 '새타령', 꽃섬신창렬 곡, 새들의 비행(토마스 오스번 곡)
경북도립국악단/25현 가야금협주곡 '궁타령의 멋'(김계옥 곡), 창과 관현악 '강원아리랑'(박한규 곡), 국악가요 '썩대머리, 너영나영, 아리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축제의 향연(김선 곡),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협주곡(하주화 편곡), 팔도민요 연곡(이준호 편곡)

제2회 벨라 무지카 정기연주회

고전부터 현대까지, 4hands에서 12hands까지

일 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강현아 010-5520-8728



피아니스트 강현아, 류희은, 이성미, 이은진, 이효선, 조성희 등으로 구성된 '벨라 무지카'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1 piano 4hands, 1 piano 8 hands, 2 pianos 4 hands, 2 pianos 12 hands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하이든, 슈베르트, 미요 등 고전, 낭만, 현대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시대별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이든/디베르티멘토 '교사와 학생' 바장조
훔멜/녹턴 바장조 작품 99
슈베르트/론도 라장조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작품 15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I - 푸치니'

일 시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 세 번째 무대 '오페라 이야기-푸치니'.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 리더 조윤범의 해설, 중국 텐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로 있는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허동권, 김중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3월 '베르디', 4월 '바그너'에 이어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대가로 꼽히는 작곡가 '푸치니'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 손', '기쁨은 어디에 있지',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중 '자유와 몸이 되어 떠났다', 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박경진 가야금 독주회

일 시 5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박경진 010-8230-4665



부산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가야금 연주단 단원, 효원국악관현악단 단원, 퓨전국악그룹 아리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박경진의 첫 번째 가야금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김병호류 짧은 산조와 가야금 병창 '고고천년', '삼월삼짓날', '새타령'과 함께 부산초연곡인 김계옥의 25현 가야금연주곡 '나나노난날', 그리고 이경섭의 위촉곡으로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장단/강봉천
- 타악/박재현
- 피리/지영재
- 대금/손한별
- 해금/강민정

아우라 목관5중주 제2회 연주회

일 시 5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오보이스트 박종관, 플루티스트 박찬엽, 바수니스트 전만익, 클라리네티스트 황원원, 호른니스트 최준호로 구성된 아우라 목관5중주의 무대. 지난 2016년 창단 연주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차이코프스키의 유모레스크, 단지의 오중주, 향수, 광화문 연가, 홀로아리랑 등 클래식에서 대중적인 음악까지를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이은정
- 국악/강은미
- 편곡/이수은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 2017 목요상설 '끌림' 천 원의 행복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마지막 주는 3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리화원 전석 1천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11일 애니메이션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윤지현, 첼리스트 정고른, 피아니스트 김문주로 결성된 리에도 트리오의 클래식에서부터 뉴에이지,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마련해오고 있다.

18일 보고 듣고 즐기는 스크린 뮤직 페스티벌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목관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노력해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이 마련하는 스크린 뮤직 페스티벌.

25일 첼로앙상블 : DIE CELLISTEN 8
 첼리스트 정준수를 비롯해 차세대 첼리스트 8명으로

바리톤 강경원 독창회

일 시 5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강경원 010-5129-4321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Diplom과정과 Solistenexamen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동대학 Meister과정에 합격, 수확한 바리톤 강경원 독창회.

Meister 학업과정 중 독일 함부르크 '로버트 슈톨츠' 국제콩쿠르, 오스트리아 '니코 도스탈 국제콩쿠르', 체코 '안톤 드보르작' 콩쿠르에 입상, 입상자 연주 및 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한 강경원은 귀국 후 귀국 독창회를 시작으로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주역,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2013년부터 BS마린컴퍼퍼 대표로 있으며 다양한 클래식 음악회를 기획해온 강경원은 2014년에는 동료 성악가들과 함께 '헤븐싱어즈'를 창단, 남성 중창의 파워풀한 울림과 매력적인 하모니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강경원은 현재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지휘자, 울산 알프스합창단 지휘자, 연양 큰별합창단 지휘자, 수안교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결성된 부산 최초의 첼로앙상블 'Die Cellisten 8'의 무대.

3일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재만 우리가곡'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학 교수, 강사로 구성된 후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우리가곡을 알려온 한국가곡연구회의 무대.

부산예술가곡 연주회 3인 음악회

일 시 5월 8일 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가곡 연주회 010-3884-4623



창작가곡 활성화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 연주회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정량부, 신재철, 소프라노 최유진이 출연, 3인 음악회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 행복의 국악나무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6일 어린이음악극 '오늘이'



제주에 전해오는 신화 '원전강 분풀이'를 소재로 우리의 전통음악과 노래, 춤 등을 접목시킨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는 극중 주인공 오늘이가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작품이다.

13일 프로그램
 문묘·종묘제례악, 검무, 피리독주 '상령산', 태평무, 경기·남도 입체창, 부채춤, 사물놀이

20일 프로그램
 취타풍류, 무고, 산조, 추초문, 진도북춤, 남도민요, 장구춤

27일 프로그램
 민락, 이백무, 구름시나위, 창작무 '달숲아래', 가곡, 창작타악, 밀양백중놀이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제9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일 시 5월 9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010-3868-2808



부산의 축방방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협연무대, 아시아오페라단 초청 싱가포르, 캄보디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모로제 성악연구회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태미, 이현정, 권미현, 이지은
- 메조소프라노/박수연
- 테너/양승엽, 김준연
- 바리톤/윤오건, 시영민
- 피아노/이소영, 김란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3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7천원, 청소년 3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0일 피아니스트 박정난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독일가곡 여행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음악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독일가곡 여행. 피아니스트 박정난과 소프라노 설은경, 바리톤 김기환, 베이스 바리톤 최현욱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 등을 들려준다. 특히 슈만의 '시인의 사랑', 베토벤 '입맞춤' 등 독일음악의 로맨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아나운서 이혜민의 해설을 통해 독일음악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17일 코르렛 더 솔로이스츠 데뷔 콘서트
탄탄한 실력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 더 솔로이스츠 멤버인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서은아, 비올리스트 김민경, 첼리스트 오현진으로 구성된

코르렛 더 솔로이스츠의 데뷔 무대. 이번 무대에서 코르렛 더 솔로이스츠는 스메타나 '현악4중주 제1번', 드보르지크 현악4중주 '아메리카'를 통해 현악기가 가진 화려하면서도 풍부한 선율을 들려준다.

24일 TDC양상블과 함께하는 관현악 모음곡 '클래식 동화'



독일, 러시아 유학파 출신의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TDC양상블의 무대. 수준 높은 공연 기획으로,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과 만나고 있는 TDC양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영상과 해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 피아노/고영주 ● 바이올린/김성빈, 한유진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 편곡, 해설/박주희
- 게스트/유주영(플루트), 장일훈(클라리넷), 박예송(콘트라베이스)

31일 슈만의 '결혼선물'
세기의 커플 슈만과 클라라. 힘들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된 슈만이 결혼 선물로 아내 클라라에게 헌정한 아름다운 가곡집 '미르덴(Myrten)'의 전곡을 소프라노 최훈녀, 강소영, 테너 조운환, 바리톤 시영민, 피아노 최진현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은지의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츠(Flute'z)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전은지클래스 010-5327-6025



오스트리아 부르크엔란트(Burgenland) 주립음악대 최고연주자과정과 악기교육학과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민, 유니타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플루트 앙상블, 플루트코르렛 '글랑',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장예지, 플레이어즈 백 전속 피아노연주자, 솜니움앙상블 리더, 솜블리트리오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혜경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플루츠(Flute'z)의 무대.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과 현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실내악곡을 들려준다.

2017 꼬레아오페라단 정기공연 팔리앗치&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일 시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학생 2만원
문의 꼬레아오페라단 010-2400-5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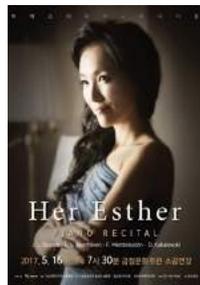
2006년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부산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지역 오페라계에 화제를 모은 꼬레아오페라단은 그동안 오페라뿐 아니라 문화소외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솔리스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오페라의 걸작으로 꼽히는 레온카발로 오페라 '팔리앗치와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 단장/안상철 ● 예술감독/김길수
 - 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성복
 - 연주/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부산대학교합창단&꼬레아오페라콰이어
- 은가비중청단

허에스터 피아노 독주회

일 시 5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우리아트 920-9545



고신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미국 아주사퍼시픽(Azusa Pacific) 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허에스터 독주회.

그동안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J.S.Bach Father of Counterpoint, Chamber Winds Recital, 피아노와 함께 떠나는 유럽여행, 3인 음악회, 피아노와 함께 떠나는 동유럽여행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허에스터는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온누리 국제학교 교사로 있다.

- 프로그램**
두세크/프랑스 왕비의 수난 작품 23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1번 바단조 작품 2
멘델스존/엄격변주곡 작품 54
카발레프스키/4개의 전주곡 작품 5

제60회 을숙도명품콘서트 2017년 Cellist 시리즈 III 이효상&양욱진

일 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7년 5월 무대.

'2017년 Cellist 시리즈' 세 번째인 이번 무대에서는 경남관악단, 김해신모니에타, 가야심모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이효상이 지휘하는 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진중한 저음이 매력적인 첼리스트 양욱진의 협연으로, 목원대학교 작곡재즈학부 외래교수로 있는 작곡가 정재운의 창작곡 'Overture 소래(蘇來)포구'를 시작으로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작품 35'를 들려준다. 협연자 양욱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대성류아쟁산조보존회 기획공연 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하마당 동향(桐香)

일 시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박대성류아쟁산조보존회 010-5438-7600



아쟁의 대가 박대성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된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가 마련한 기획공연 '동향(桐香)'.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한일섭 선생의 1대 제자인 박대성은 지난 2009년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

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대성의 박대성류아쟁산조를 비롯해 김명자의 '살풀이', 윤진철의 '춘향가' 중 '이별가' 등 명인 명무의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정선겸, 이창희/동향(桐香) 아쟁/정형석, 진민진, 김애리, 정선겸: 장구/장주영·피아노/이창희

장은교/Vahalla(대아쟁/권다정, 장은교, 이지현, 김평진, 박선영·가야금/방은지)

정선겸, 이창희/공존(연주/신민속악회 '바디')

사물판과&사자놀이(연주/전통연희단 '집이') 등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7 행복한 오월! 문화나눔 콘서트

일 시 5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부산시립합창단이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지 못한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2017 행복한 5월 '문화나눔 콘서트'.

5월 19일 금정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2일 해운대문화회관, 23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등 3곳 문화회관 순회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19일 금정문화회관

밤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멘델스존/노래의 날개 위에 소프라노 남순천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22일 해운대문화회관

밤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최선희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23일 영도문화회관

밤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최선희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알토 손미숙

김규환/간다 간다 하더니_테너 김진영

도나우디와/아름다운 그대 모습_베이스 최성규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
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
가다보면

22일 해운대문화회관

밤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정애련/달아_소프라노 박성희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비네라'_알토 이유진

라리/그라나다_테너 최원갑

토스티/최후의 노래_베이스 강병재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
로수 그늘 아래서면, 이 세상 살아
가다보면

23일 영도문화회관

밤 칠콧/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_
소프라노 최선희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알토 박성혜

마스네/오페라 '베르테르' 중 '무엇때문에 나를 깨우는
가' 테너 최춘식

변훈/임진강_베이스 문동환

인생을 담은 합창/알 수 없는 인생, 시를 위한 시, 가
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세상 살아
가다보면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제53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5월 23일(화)-24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165-1219

지난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보급 및 젊고 역량 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만들어 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이번 무대에서 첫날인 23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중견 피아니스트인 배수정과 이화영선이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듀오작품을 들려주며, 24일에는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 동아대학교 최지은 교수, 박정희 교수 등 14인의 피아니스트들이 출연, 낭만시대의 대표 작곡가 리스트, 브람스의 작품을 비롯해 발레음악, 재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23일 연주/배수정, 이화영선

● 24일 연주/조현선, 김병기, 최지은, 박정희, 성민주, 이아영, 차미령, 전영숙, 하승경, 원영아, 서주옥, 한은아, 윤모영, 이현지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6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 여행 '사랑의 속삭임'

일 시 5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국악작곡가회 510-1739



2004년부터 시(詩)를 노래와 음악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소리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창작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를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백진희 '류', 성기영 'ZEITGEIST', 백규진 '백단향', 이은경 'With Bach', 조익래 '25현 가야금 3중주 추억 나들이', 박선영 '아웃포커싱 러브', 황의중 '사랑의 속삭임', '강마을'

● 음악감독/황의중 ● 해설/백규진

● 작곡/박선영, 백규진, 백진희, 성기영, 이은경, 조익래, 황의중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5회 프롬나드 콘서트 사랑을 싣고 | With Love

일 시 5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1층)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990-7042~7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128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사랑의 꿈

엔니오 모리코네/영화 '시네마천국' 중 사랑의 테마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수곡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제3회 사랑나눔음악회 라면음악회 II '비발디 글로리아'

일 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1만원(수익금 전액 기부)
문의 사랑나눔합창단 010-2559-1050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노래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사랑나눔합창단의 세 번째 사랑나눔음악회.

이번 무대에서 사랑나눔합창단은 악센투스(Accentus)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제이자 음악가였던 비발디가 남긴 대표적인 종교 성악곡인 '글로리아'를 들려준다. 바로크 성악 음악의 수작으로 꼽히는 '글로리아'는 극적인 합창과 서정적인 아리아로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적인 성악곡으로, 영화 '사인'에 삽입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곡이다.

이번 사랑의 라면 나눔 음악회는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무대로, 이번 공연을 통해 기부받은 라면과 공연 수익금 전액은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금정경찰서를 통해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진다.

제7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 대축제

일 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지역 12개 소년소녀합창단이 한 자리에 모여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노래하며 우정의 향연을 펼치는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한다.

- 출연/기장소년소녀합창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동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KBS부산어린이합창단

- 사회/박은승

2017 메이플루트 페스티벌

일 시 5월 28일 일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프레멘토 010-4554-7777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봄 마련하는 메이플루트 페스티벌 2017년 무대.

올해로 8번째를 맞는 2017 메이플루트 페스티벌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팝, 재즈,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OST, 가요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들을 플루트와 클라리넷, 피아노 편성의 앙상블로 감상할 수 있으며, 전통밸리팀의 특별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 음악감독/김인호

제4회 을숙도 대학 가곡제

일 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지역 7개 음악대학 성악전공자들에게 무대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향토색 깊은 창작가곡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 열리는 제4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전은지 플루트 클래스 연주회

일 시 5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전은지클래스 010-5327-6025



오스트리아 Burgenland 주립음대 최고연주자와 정교하고 학기교육과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Project Ensemble Flutez 리더로 활동하며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와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텔레만, 모차르트, 보케리니, 이베르, 무진스키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출연/전은지, 김태영(해초초 5학년), 박보미(두살초 6학년), 장진서(중앙중 2학년), 양효은(사대부고 1학년), 김예린(동의대 1학년), 정정우(신라대 1학년), 김혜민(신라대 2학년), 홍미리(신라대 2학년), 송지윤(신라대 4학년), 김성민(신라대 3학년), 강유미(신라대 4학년), 오영은(동의대 3학년), 오은지(울산대 4학년), 황술이(신라대 3학년)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김주원, 이수민 바이올린 듀오 연주회

일 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후원금(사전예약에 한함)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kr

지역 최초 사진전문미술관인 고은사진미술관이 마련하는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5월 무대.

사진으로 가득한 전시관에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5월에는 JK양상블, 솔로이스츠 멤버로 활동중인 김주원, 화음멤버오케스트라, 현대음악양상블 에클라 멤버로 활동중인 이수민의 바이올린 듀오무대로 꾸며진다.

김주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영재입학, 조기졸업)와 미국 예일대학교(석사, 최고연주자과정), 뉴욕주립대 스톤브룩(박사)을 졸업하고 유라시아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오사카국제현악콩쿠르, 알렉산더 부오노 국제현악콩쿠르에서 1위 및 입상한 바 있다.

이수민은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 오벌린 음대(석사)와 예일대 음대(석사)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만 26세에 전액장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동안 세계 각국 음악축제 및 아카데미 초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헤븐싱어즈 악(樂)소리나는 세계여행

일 시 5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초대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주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휴가'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5월 무대에서는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남성 성악가 세 명으로 결성된 헤븐싱어즈가 출연.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등 각 나라의 대표곡을 마임,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헤븐싱어즈는 그 동안 오페라, 가곡, 칸초네, 뮤지컬, 7080, POP & K-POP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모든 관객을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 왔다.

- 반주/하영화
- 마임/방도용
- 특별출연/정은미

연극 | Play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3월 9일(목)~5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오도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1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으로, 지난 1998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국내 최장기 오픈런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라이어'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라이어 튀어'.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과 100억 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이 뒤바뀐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 상황 속에서 영호를 의심하는 형사들이 찾아오고 이들을 따돌리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가방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평범한 남자의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그린 '라이어 튀어'는 잠시도 눈을 땄 수 없는 긴박한 전개와 잘 짜인 연출, 놀랄만한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

일 시 3월 23일(목)~5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03년 정다빈 김래원 주연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옥탑방 고양이'. 작가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영동한 시골여자 정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차가운 도시 남자 경민이 옥탑방으로 동시에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달콤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2010년 초연무대 이후 6년 연속 연극 예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원작/김유리
- 작/박은혜
- 연출/김태형, 정세혁, 이지영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

일 시 5월 5일(금) 오전 11:00, 오후 2:00, 4:00,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이골림부산 1644-5764



호비와 그의 친구들이 등장 어린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사랑받아온 어린이 율동뮤지컬 '호비쇼'.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즐겁게 노는 호비와 친구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지만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야단을 맞고 심술난 호비는 놀이터에 혼자 남아 길을 잃은 숲 속 꼬마요정 새미를 만나게 된다. 호비는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새미를 위해 레오아저씨와 친구들과 함께 새미의 엄마를 찾아 모험을 떠는데... '호비쇼' 7번째 이야기인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은 기존 캐릭터인 호비, 베니, 페로 외에도 레오아저씨, 낭이 등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함께 입체영상은 물론, 특수효과를 이용한 무대 연출로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2017 부산공연예술축제 '공감을 즐겨라' MAC OFF FESTIVAL

일 시 5월 2일(화)~21일(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야외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 5천원, 학생 1만 5천원
(가족음악회, 슈퍼데디 최고봉은 무료)

문의 동래문화회관 550-6611, 극단 맥 625-2117



거리공연예술이 드문 부산에 새로운 형태의 공연축제를 열기 위해 동래문화회관과 극단 맥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마련해온 2017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이번 축제에서는 2016 프랑스 아비뇽 IN 공식 초청자인 프랑스 발공극장 '목이 마르다'와 2014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 최고의 흥행작인 벨기에 Night shop 극단의 '침묵' 등 해외작품들과 교육극단 이야기의 아동극 '어이쿠 호랑이', 클래식라디오 '가족음악극', w.무용단 '1 go, 1 go', 극단 맥 '비나리'와 '피의 결혼', 뮤지컬 '슈퍼데디 최고봉' 등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일정
극단 이야기 '어이쿠 호랑이'
5월 2일(화)~5일(금) 평일 오전 10:30, 11:30(단체공연),
공휴일 오후 2:00, 4:00 대극장

w.무용단 '1 go, 1 go'
5월 6일(토) 오후 4:00 대극장

클래식라디오 '가족음악극'
5월 13일(토) 오후 5:00 대극장

거리춤, 봄을 만나다 '검무, 동래학춤'
5월 14일(일) 오후 4:00 야외공연장

프랑스 발공극장 '목이 마르다'
5월 15일(월) 오후 8:00 대극장

거리춤, 봄을 만나다 '춘하무, 부채춤, 한량춤'
5월 16일(화) 오후 7:00 야외공연장

벨기에 Night shop극단 '침묵'
5월 17일(수)~18일(목) 오후 8:00 대극장

극단 맥 '비나리'
5월 19일(금) 오후 8:00 대극장

극단 맥 뮤지컬 '슈퍼데디 최고봉'
5월 20일(토) 오후 4:00 대극장

극단 맥 '피의 결혼'
5월 21일(일) 오후 4:00 대극장

극단 누리에 '임대아파트'

일 시 5월 9일(화)~11일(목) 오후 8: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극단 누리에 621-3573, 612-1372



이 시대 고단한 청춘들을 위한 찬가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정호와 재성은 친구사이이고, 영화감독을 준비하는 재성과 정호의 누나 정현은 오래된 연인 사이이다. 막내 정수는 배낭여행에서 만난 일본인 유카와 현해탄을 넘어 열애 중이다. 재성과 정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준비한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며 그런 재성을 바라보는 정현은 현실과 사랑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는데...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누리에가 선보이는 연극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6년 초연무대와 2007년 앙코르공연 당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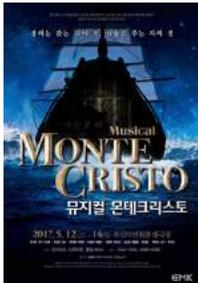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양지웅, 김재윤, 우지현, 최주영, 김태원, 정재희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일 시 5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주)EMK뮤지컬컴퍼니 1544-1556, 1588-0766



가슴아픈 사랑, 음모와 배신, 처절한 복수, 용서와 감동 등 인간의 희로애락을 절묘하게 녹여낸 대작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세계적인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뮤지컬로 제작한 '몬테크리스토'는 지난 2010년 국내 초연 후 유럽 뮤지컬 흥행의 포문을 열었던 작품으로, '마티하리', '지킬 앤 하이드'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로드웨이 작곡가인 프랭크 와이لد혼의 애절하면서도 웅장한 뮤지컬 넘버와 원작 소설의 배경을 그대로 재현한 유럽풍의 클래식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엄기준, 신성록 등 역대 최고의 몬테크리스토와 더불어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될 몬테크리스토 역에 카이, 메르세데스 역에 조정은, 린아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가정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동춘서커스'

일 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1: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P 3만원,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동춘서커스'

1925년 일본인의 서커스단 직원이었던 동춘 박동수에 의해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단은 지난 2009년 서커스의 사랑화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하나밖에 없는 서커스단을 살리자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사화생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서커스공연단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커스단의 보존과 새로운 프로그램 창작을 노력해온 동춘서커스단은 그동안 'NEW 흥길동', '동방의 신기 비전' 등 테마가 있는 서커스로, 연간 650회 가 넘는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각종 아크로바틱, 저글링, 줄타기, 번쩍, 서커스발레, 공중요기 등 다양한 기예를 선보인다.

2017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유준상, 그의 연기 그리고 음악

일 시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20년이 넘는 시간을 무대와 브라운관을 통해 배우 그리고 음악인으로 성실히 자리를 지켜온 유준상과 함께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5월 무대.

2집 앨범 'The FACE'를 들고 가수로 돌아온 유준상이 가수 이준화와 결성한 제이앤조이의 노래무대와 그가 감독, 출연한 2016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작 '내가 너에게 배우는 것들'의 음악과 여행 이야기, 그리고 뮤지컬 '그날들' 등 그를 뮤지컬배우로 각인시킨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유준상의 연기, 음악, 사람 이야기를 통해 그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샌드아트뮤지컬 '사는게 꽃갈네'

일 시 5월 18일(목)-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전석 3만 5천원
문의 (주)문화공 1688-8998, www.mccong.kr



미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sand art)'와 '뮤지컬(musical)'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샌드아트뮤지컬 세 번째 시리즈 '사는게 꽃갈네'.

2017년 거창국제연극제 초청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세대공감 음악극 '사는게 꽃갈네'는 시골 분옥 할머니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을 소재로 실버세대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했던 우리네 가족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특히 이번 무대는 기존의 샌드아트뮤지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샌드아트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 영상기술인 'LED 샌드박스'를 시도, 샌드아트 라이브 퍼포먼스와 그래픽 영상이 동시에 구현되는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동요콘서트 '구름빵'

일 시 5월 18일(목)-28일(일) 평일 오전 10:00,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1: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
문의 (주)문화공 1688-8998



신나는 동요와 따뜻한 동화가 어우러진 오감만족 에듀테인먼트 '구름빵'

전 세계 40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구름빵'은 주인공 흥비의 절친한 친구 울리, 빵이저씨 등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기존 무대와 다른 새로운 공연으로 탄생시켰다. 실사 없이 이어져 나오는 작곡가 감성군의 신나는 동요와 함께 흥겨운 율동이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구름빵 만드는 과정을 설명과 율동으로 보여주며, 공연 후에는 관객들과 구름빵을 나누어 먹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 원작/백희나 ● 극본/최은이
- 작곡/김성균 ● 연출/이재진

효로민락소극장 개관공연 변현주 인극 '어머니 날 날으시고...'

일 시 5월 25일(목)-6월 24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15세 이상 관람, 5인 이상 관람 시 2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전용극장인 '효로민락소극장'을 개관한 극단 새벽이 개관기념으로 마련하는 변현주 인극 '어머니 날 날으시고...'

극단 새벽의 창단멤버인故 윤명숙의 대표작으로 오랜기간 사랑받아온 '어머니 날 날으시고...'는 일란성 쌍둥이 영란, 정란의 삶과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 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그려낸다. 윤명숙의 뒤를 이어 무대에 서고 있는 배우 변현주가 두 사람의 일란성 쌍둥이 역과 어머니를 비롯해 역술인, 달동네 사람들 등 총 아홉 명의 등장인물을 맡도 있게 그려낸다.

2017 가정의 달 특집 점프

일 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8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국내 및 전 세계 40여 개국 120여 도시, 1만여 회 공연으로 전 세계 500만명 이상 관객이 환호한 '점프'.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택견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코믹 마살아트 퍼포먼스 '점프'는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생생한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로 대사없이 관객들에게 전한다. '점프'는 2003년 7월 초연된 이후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판매순위 1위, 미국 브로드웨이 '오픈런' 그랜드 오픈 등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행사 | Event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3월 15일(수)~6월 14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13주 20만원(지난 강좌 회비 삭감)
문의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663-5311~5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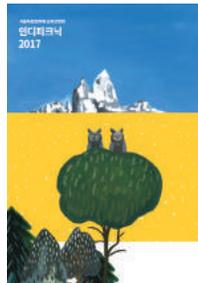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5월 10일 보사노바&탱고 '몽환의 리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우울한 밤'

- 5월 17일 레게&안데스음악 '자메이카의 영혼, 안데스산맥의 메아리'
- 5월 24일 칸초네 '나폴리의 빨간토 선율'
- 5월 31일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가슴 적시는 남미의 풀뿌리 음악'
- 기획, 해설/예일 최정욱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 2017

일 시 4월 20(목)~5월 3일(수)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00, 780-6080



한 해의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 2017'. 지난 2004년 시작된 후 올해로 14회를 맞는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 2017'에서는 2016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작인, 청년 평크스의 발산하는 치열한 일상과 저항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노후 대책 없다'를 비롯해 성소수자 캐릭터를 안기하며 내면의 위악을 성찰하는 '분장'(새로운선택), 부당한 노동에 맞서 알바노조를 결성하고 싸우는 '가현이들' 등 장면과 2016년 서울독립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를 석권한 '여름밤'(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원형적 서사를 가져와 심연의 공포를 드러내는 애니메이션 '무저갱'(심사위원상), 도시 주거의 문제를 유쾌하게 폭로하는 '천에오십만지하'(새로운시선상), 세월호 2주기 416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416프로젝트 망각과 기억-자극' 등 단편까지 8색성 21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2부

일 시 5월 30일 화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전화예약 필수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실황 영상은 물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얘기를 담아낼 스크린 콘서트 5월 상영회에서는 4월에 이어 천재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리사이틀 공연실황 2부를 상영한다.
3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0살에 독주회, 12살에 협연 데뷔 무대를 가진 김선욱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06년 리즈 콩쿠르에서 대회 40년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로 주목 받으며 본격적인 연주자 생활을 시작했다.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할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김선욱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의 후기를 대표하는 '디아벨리 주제'에 의한 33개의 변주곡 작품 120을 연주한다.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5월 아카데미

일 시 5월 1일(월), 8일(월), 12일(금), 15일(월), 22일(월), 25일(목), 29일(월) 오후 7:30
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음료 포함)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1일(월) 촬영감독의 영화읽기(4) 구스 반 산트의 눈, 해리스 사비데스, 영화 'Elephant'
- 강사/정성욱(촬영감독,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8일(월)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 'Caravaggio(2), 영화 카라바조'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 12일(금) 우리의 근·현대사와 대결하는 화가 신학철의 사유와 예술
- 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 15일(월) 객근수의 클래식투어(1) '슈만의 사랑과 예술가'
- 강사/객근수(음악평론가)
- 18일(목)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4)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로스트제네레이션의 작가들'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22일(월) 아메리카의 과거, 현재, 미래(1) '영화 블레이드 러너'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 25일(목) 돈(2) '유혹'
- 강사/오흥선(금융교육전문가,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 겸임교수)
- 29일(월) 박창호의 인문학 특강(3) '고독과 불안...실존의 문제들'
- 강사/박창호(철학박사, 고음악평론가, 갤러리카페 나다 대표)

영화의전당 2017 두레라움 초코아트페스티벌

일 시 5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6: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두레라움광장, 영화촌
입장료 참가비 5천원
문의 영화의전당 780-6024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바닥에 분필(초크)을 가지고 참가자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광장축제. 전문가들의 초코아트 작품 시연 및 완성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존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존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그대안의 블루(Blue)**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9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 3월 14일 600회를 맞은 '좋은음악&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 5월 2일(607회) Sky Blue
- 5월 16일(608회) Cobalt Blue
- 5월 23일(609회) Blue jeans
- 5월 30일(610회) '아름다움의 구원'(한병철 저, 문학과 지성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문화센터 부산본점 교양강의실

입장료 전석 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크공연, 클래식음악영화 'CITY OF JOY' 등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MBC FM 목요일음악회를 기획, 연출한 전 MBC PD 김옥균이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해설감상회. 5월에는 '가정과 사랑'을 주제로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켈릭우먼 콘서트,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질츠부르'를 소개한다.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8강 쇼팽과 리스트**

일 시 5월 9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균일 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이번 강좌에서는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피아노에 벨칸토를 접목해 새로운 피아니즘의 지평을 열었던 쇼팽과 쇼팽이 제시한 피아노 기교를 더욱 발전시키며, 교향시라는 새로운 음악양식을 창시한 피아노의 마술사, 피아노의 파가니니로 불려지는 리스트의 예술세계를 스페셜리스트들의 명연주와 다양한 인문학

학적 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제3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5월 16일(화)-5월 28일(일)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문의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부산 예술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축제 '제3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한껏 펼치면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지역 유일의 청소년 예술문화 종합축제로,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12개 협회가 주관해 공연, 경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주요일정

- 부산청소년연극제**
17일(수)-26일(금) 오후 4:00, 7:00(주말 공연없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청소년다도인생나무술가꾸기 체험발표회**
19일(금)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3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공연 '부산청소년음악제'
19일(금)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학생그림공모전, 학생사진공모전
19일(금)-24일(수)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제31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20일(토) 오전 9: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소년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본선)
20일(토)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건축상상마당
21일(일) 오전 9: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건축상상마당(전시)
21일(일)-27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청소년 꽃다발만들기대회 및 체험교실
27일(토) 오후 1:00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청소년 시 낭송대회
27일(토) 오후 1: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무용예술제
2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28일(일) 오전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3강 스페인 회화 '엘 그레코'**

일 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균일 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김성민은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 바티칸, 우피치미술관 등 이탈리아 현지 미술관에서 10년간 작품 해설을 해오다 지난 2016년 귀국, 예술강연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5월 강좌에서는 종교화와 초상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후일 표현주의와 추상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던 화가 엘 그레코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전시 | Display

부산예술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누리-愛

일 시 5월 20일(토)~11월 25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21-3573, 612-1372,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이 상주단체인 극단 누리애와 함께 마련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누리-愛'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극기초교육 및 연극놀이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연극도 감상하는 가족참여형 예술감상 프로그램으로, 5기로 나뉘어 한 기수당 4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모집대상/부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3학년~6학년) 중·고등학생
- 모집인원/각 기수별 30명(선착순 모집)

제11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어버이 주제 시낭송회, 음악회

일 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서면 신세계안과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유영국 '절대와 자유'展

일 시 3월 29일(수)~6월 25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소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 화가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주최로 마련하는 유영국 회고전. 특히 부산에서 피란시절 미술활동을 했던 유영국의 예술가로서의 경로와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한국의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대담한 형태로 빛어낸 추상미술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 참견錄 2017 모래 아이스크림 - 정주하

일 시 3월 4일(토)~5월 1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www.goemunmuseum.kr

변대용·배남주展

일 시 4월 6일(목)~5월 11일(목) 갤러리 래
문의 갤러리 래 995-2020

지석철展 '부재-시간, 기억' (Nonexistence-Time, Memory)

일 시 4월 6일(목)~6월 22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한국 극사실주의 1세대 대표작가이자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가 지석철의 근작 30여점 전시. 지난 1982년 한국의 대표 청년작가로 파리비엔날레에 초청받아 미니의자 300개를 설치작품으로 선보인 후 파리비엔날레 10대 작가로 선정되면서 이후 '의자 작가'로 알려지게 된 지석철은 부재의 서사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써 이제는 작가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미니 의자'를 지속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시켜 시대의 상실과 아픔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NBA world star Toy'展

일 시 4월 21일(금)~5월 28일(일)
롯데갤러리 부산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점 678-2610

2nd 여근섭 개인전

일 시 4월 25일(화)~5월 8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이태열 개인전 'The color of sea'

일 시 5월 1일(월)~5월 31일(수)
BNK부산은행 범내곡, 서면롯데, 제니스파크 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Isle of Harris 에서 2년에 걸쳐 소나기 내리는 바다를 촬영한 사진작품이 선보이는 이태열 개인전 'The color of sea'.

갤러리 예가 기획전 길상 미술 작품전

일 시 5월 2일(화)~14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제전시실
문의 갤러리 예가 624-0933, 010-3572-2872



포도, 양귀비, 게, 해바라기, 오리, 석류, 닭, 밤, 원앙, 호랑이, 솟대, 소나무, 공작, 복어 등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길상(吉祥)'의 내용을 서양화, 한국화, 판화로 표현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세종, 김해지역 작가 13명의 작품 50여점 전시.

제6회 부산전승공예보존회전

일 시 5월 19일(금)~5월 25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고은사진미술관 독일국제교류처(IFA)

해외교류전

바바바 클렘, 빛과 어둠

일 시 5월 20일(토)~8월 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55-746-0055, www.goemunmuseum.kr

제43회 부산여류전

일 시 5월 29일(일)~6월 7일(수)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RECORD



로테 케스트너(Lotte Kestner)

▶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 시인 임의진의 초이스 음반.

느림, 고독, 방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자 포크로커인 로테 케스트너(Lotte Kestner). 본명이 '안나 린 윌리엄스(Anna-Lynne Williams)'인 로테 케스트너는 주로 시애틀에 머물며 EP 음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타전한다. 첫 데뷔는 케미칼 브라더스의 2005년 앨범으로 이후 주로 인디록 컴필레이션에 참여했다. 2007년에 이르러 '로테 케스트너'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노래들을 재해석한 커버송 앨범에 별칭으로 썼다. 인디 포크로커인 다미안 후라도(Damian Jurado)와 듀엣으로 공연을 갖기도 했는데, 그는 국내 소개된 〈여행자의 노래〉 1집 수록곡 'Ohio'의 주인공이다. 사비나 야나투, 이노센스 미션, 나오미 앤 고로, 데이비드 버클리 등에 이은 시리트로, 닉 드레이크, 핑크 플로이드, 라디오헤드, 킹스 오브 컨베니언스, 엘보, 슬로우 다이브를 비롯 존 레논까지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총망라해 재해석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15th Anniversary 그리고 9번째 음악이야기

▶ '세상의 모든 음악'이 심어놓은 열다섯 그루의 나무

2002년 4월 1일, 첫방송을 시작한 '세상의 모든 음악', 레코드실에서 숨쉬고 있던 아름다운 음악들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만나 청취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음악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5주년을 맞아 열다섯 곡을 새롭게 내어놓는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부터 음반에 수록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15년을 기다린 끝에 이번엔 담게 된 '로리나 맥케닛(Loreena McKennitt)의 'The Dark Night of the Soul', 뮤직노트의 코드 음악인 'Tierra del Fuego', '세상의 모든 음악'이 소개해 널리 알려진 에바 캐시디(Eva Cassidy) 등을 이번 9집 음반에 담게 되었다. 더욱이 '세상의 모든 음악' 시그널 음악인 'Tiger in the Night'을 콜린 블룬스톤(Colin Blunstone)의 노래로 첫 곡으로 실을 수 있어서 15주년의 의미가 더해진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심어놓은 열다섯 그루의 나무가 앞으로 더 길 위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기를,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정원이 되고 휴식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Song to the Moon -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 잔잔한 클래식, 동화 같은 그림이 함께 있는 감성 저격 음반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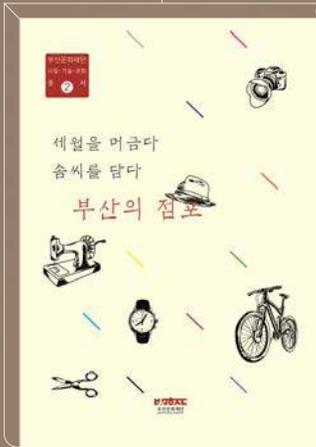
달을 소재로 한 클래식을 '히어링'하고, 달빛을 '컬러링'하며, 가슴을 '힐링'한다. '달'을 소재로 한 15곡의 클래식 명곡과 15종의 삽화를 동봉한 아울로스 미디어 기획음반으로 슈베르트, 슈만, 베토벤, 쇼팽 등의 가곡과 가악곡으로 되어 있다. 각 곡은 2~10분 분량으로 클래식 음악에 처음 입문하는 이도 부담 없이 '달'을 소재로 한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슈베르트 '가을 저녁'과 토스티 '초승달'을 제외하고 모든 노래는 여성 성악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일러스트레이터 류희의 삽화는 달과 인간이 연출하는 아름답고 감성 어린 풍경을 담고 있으며,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밀그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봉된 색연필(12색)을 통해 자신만의 색을 입힐 수 있다. 이 음반은 현대인에게 휴식, 위안, 만족, 낭만, 아날로그의 감수성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음악의 히어링(Hearing)을 통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감성 저격 콘텐츠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BOOK



부산의 점포

김다희 외 / 부산문화재단 / 188p / 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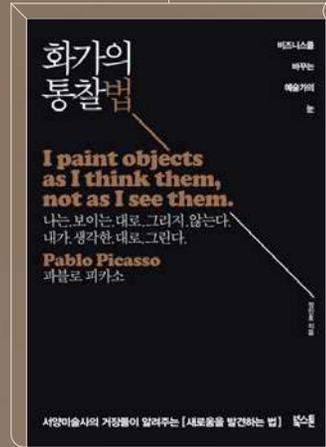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오래된 가게들도, 손기술 하나로 자신의 가게를 일구던 장인들도 사라져 간다.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도 오래된 점포들이 남아있다. 부산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굴해내고 문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총서’가 그 기록을 하고 있다. 총서의 2권은 〈세월을 머금다, 숨씨를 담다-부산의 점포〉이다. 부산의 노포(老鋪)를 지키는 장인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 얹힌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조갑성(소설가), 뿌리야 김(사진작가), 김다희(시인), 김대갑(여행작가), 김한근(부경권대사료연구소 소장), 동길산(시인), 최원준(시인)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세탁소처럼 볼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점포, 배를 타는 이들만 찾는 선원용품 판매점처럼 전문적인 가게, 연탄 판매점, 도장포 등이다. 이 모든 점포는 우리의 생활 풍속사와 더불어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통한다. 같은 일을 50년 이상 해온 분들이 들려주는 생활에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김혜리 지음 / 어크로스 / 344p / 1만 4천 원

“삶은 영화와 같다. 그래서 주시하지 않으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소중한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씨네21 김혜리 기자의 주장을 정리해 본 말이다. 영화의 밀도와 미덕을 지적하고 시적인 자세로 이야기해오는 동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저자가 그의 영화 일기장을 공개했다. 2008년 〈영화를 멈추다〉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영화 에세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통과해 온 ‘영화의 모든 계절’이 담겨있다. 저자는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음색은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글을 쓰고 싶다”, “내가 느끼는 촉각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영화로 만난 작고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을 이야기한다. 김혜리의 많은 독자들,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는 영화 소개 라디오-팟캐스트의 수많은 청취자들은 저자를 통해 영화를 보고 싶어 할 정도이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당신처럼 써보고 싶어서 영화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고백과 함께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신형철은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김혜리의 영화 글쓰기를 분석, 인용, 비유, 성찰 네 요소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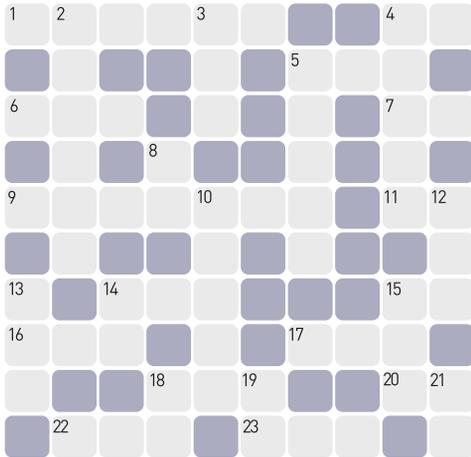


화가의 통찰법

정인호 지음 / 북스톤 / 284p / 1만 6천 원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비즈니스가 성공할 때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남들이 주지 못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과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한 제조회사는 예술가를 생산라인에 투입해 생산효율성을 25%나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직원들이 예술가와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계나 설비의 개선점과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견하게 되었고, 직원들간 소통도 원활해지면서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책은 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 배우는 비즈니스 통찰법을 담았다. 저자는 경영학 박사이자 컨설턴트이다. 저자는 사암미술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화가들이 보여준 예술적 사유와 상상력, 창의력의 정수를 오늘날의 비즈니스에 개입시켜 설명하고 있다.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하면 비즈니스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표현의 파괴와 감성적 공감, 존중이라는 예술의 속성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술적 감성과 통찰을 냉철한 비즈니스 세계에 접목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경이롭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옐로인 플라워

가로열쇠

- ① 4월 21일 부상을 찾은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 지난 1928년 모스크바 국영방송국 전속합창단으로 창단된 후 오랜 전통 속에 슬라브 특유의 깊은 원숙함과 풍부한 하모니로 세계 음악팬들을 매료시켜왔다.
- ④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
- ⑤ 프랑스어로 '동지', '당파'라는 뜻의 'parti'에서 유래된, 일정한 조직체계에 의하지 않는 비정규군의 별칭.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25전쟁 전후 지리산 부근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공비를 일컫는다.
- ⑥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도시로, 홋카이도에서 하코다테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 유명하다.
- ⑦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는 도시. 예로부터 서울과 영남을 이어주던 고갯길인 00새재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00새재는 '새재' 혹은 '조령(鳥嶺)'이라 하는데 높이가 1,017m인 조령산은 '새도 날아서 넘어가기 힘들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 ⑨ 20세기 가장 잘 알려진 미국 가수 중 한 명으로, '로큰롤의 제왕'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4년 데뷔 이래 총 18곡의 빌보드 넘버원 히트 싱글을 남겼으며, 비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약 2억 8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 ⑩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 천재 관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한재림 감독, 송강호 주연의 한국영화.
- ⑭ 선천적인 성량에 의존하는 동면제와는 대조적으로 기교와 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판소리 유파. 발림이 많이 들어가면서 연기적인 면이 강하다.
- ⑮ 99세를 달리 이르는 말. 한자의 '뽀' 자에서 'ㅡ'을 빼면 '뽀' 자가 되는 데에서 유래했다.
- ⑯ 주의,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 가치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기나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일본말인 '치라시(ちらし紙)'에서 유래했다.
- ⑰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과거 네덜란드령 기아나로 알려졌으나, 1975년 11월 25일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 수도는 파라마리보.
- ⑱ 수면 위에 유성 물감을 띄워 가볍게 저어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든 다음 종이를 얹어서 찍어내는 방법.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무늬가 대리석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 ㉔ 청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그 맛이 뛰어난 진짜 생선이라는 뜻의 '진어(眞魚)'라고도 불리며, '본 바탕이 좋은 것은 낚고 할어도 그 본 성품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씩어도 00'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 ㉚ 국악계 최초 밀리언셀러인 '화심곡'의 주역이자 지난 40여 년간 친근한 소리꾼으로 사랑받아온 국악인.
- ㉜ 미국의 서부나 남동부 지방의 개척지에 살던 백인들의 민속 음악. 점차 대중음악으로 자리잡았으며 블루그래스(bluegrass), 웨스턴(wester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000음악.

세로열쇠

- ② 러시아의 작곡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그는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베르크의 표현주의 작품들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작곡했으며, 15곡의 교향곡 외에 현악4중주곡, 가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음악, 영화음악 등 많은 걸작을 남겼다.
- ③ 태종 5년(1405년)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조선의 궁궐. 비교적 완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고궁으로, '왕의 동산'이라는 뜻의 금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④ 민족문학의 큰 봉우리인 요산 김정환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문화관.
- ⑤ 빼빼 마르고, 뺨간 머리에, 주근깨투성이 안의 성장기를 그린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작.
- ⑥ 현악기가운데 하나로, 두 손으로 줄을 튕겨 연주한다. 인류가 만들어 낸 악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악기로, 기원전 약 3,000년경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와 유사한 악기가 만들어졌으며, 고대 그리스화에서는 헤르메스가 이 악기를 발명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 ⑩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45년에서 1862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소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제목 00000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주제에 대한 작가의 분노를 나타낸다.
- ⑫ 이광수의 '흙과 더불어 일체' 당시의 농촌사업과 민족주의를 고무한 공로로 한국 농촌소설의 생僻으로 평가받는 심훈의 장편소설.
- ⑬ 세 가지의 다른 손 모양을 내밀어 손사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 가위바위보.
- ⑭ 운동주의 대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⑮ 한국 태생의 미국 미술작가, 작곡가, 전위예술가. 특히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을 창안하여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예술가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1997년 독일 '카피탈'자가 선정한 세계의 작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 ⑯ 말은 하지 않고 몸짓과 얼굴의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연극. 무언극(無言劇).
- ⑰ 미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해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 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육상동물이며 100km/h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아프리카 남부, 중부, 동부의 개활한 평야에 서식하며, 극동지역에서는 거의 멸종되었다.

지난호 정답

1	노	자	와	베	2	토	벤			3	아			
	블					함				4	도		리	
5	레	퀴	엠		6	산	7	타	루	8	치	아		
	스				9	모		투			도		10	말
11	오	카	리	나						12	건	곤	감	리
	블					리				13	나			아
14	리	우	15	데		자	네	이	루			16	소	치
	주		카					팅						
					17	르	포	18	게		르	니	19	카
20	이	집	트			21	해	일					22	이

4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김지선(남구 우암로), 이영옥(부산진구 중앙대로)
공간소극장	김보미(연제구 과정로), 백승희(금정구 부곡로), 양소미(남구 유엔평화로) 오희경(남구 석포로), 정윤철(해운대구 재반로)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김인섭(남구 진남로), 남중경(해운대구 선수촌로), 박정화(남구 분포로) 정영희(부산진구 동평로), 조새늘(해운대구 대전로)
큰집식당	김인석(사상구 냉정로), 이명숙(북구 금곡대로), 임재철(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조은경(동구 초량로), 최미란(북구 화명신도시로)



5월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5월,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산시립극단이 가족인형극 '꼬마도깨비의 옛날 옛날에'로 5월 12일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24일 구화학교, 30일 부산은혜학교 등 세 곳을 찾아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꼬마도깨비의 옛날 옛날에'는 5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를 위한 맞춤 페스티벌 '2017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작품으로, 우리의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뒤죽박죽 이야기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환상을 심어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5월 1일 성서초등학교 초청공연에 이어 13일 영도초등학교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5월 25일 해양대학교 초청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4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로비콘서트' 무대에 이어 26일에는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부산시립무용단은 5월 17일 부산시청 '로비콘서트'에서 '춤의 회화전'으로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5월 1(월) 오전 10:00, 11:00 성서초등학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5월 12일(금) 오전 11:00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립극단 가족인형극 '꼬마도깨비의 옛날 옛날에'

5월 13(토) 오후 12:00 영도초등학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5월 17일(수)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
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

5월 24일(수) 오전 11:00 구화학교
부산시립극단 가족인형극 '꼬마도깨비의 옛날 옛날에'

5월 24일(수)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청 로비콘서트'

5월 25일(목) 오후 4:30 해양대학교 미디어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5월 26일(금) 오후 3:30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부산시립교향악단

5월 30일(화) 오전 11:00 부산은혜학교
부산시립극단 가족인형극 '꼬마도깨비의 옛날 옛날에'



(재)부산문화회관, 유엔평화기념관 공동업무 제휴 추진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업무 제휴를 추진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기획공연 '딱따구리 콘서트'를 앞두고 유엔평화기념관과의 공동제휴를 통해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유엔평화기념관은 구입한 티켓을 기념관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이용권과 패키지로 결합, 어린이날 특별관람권으로 사용한다. (재)부산문화회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은 이번 공동업무 제휴를 시작으로 5월 중 공동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양 기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개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가입신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매수령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 www.bscc.or.kr | 051-607-6075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대표소 제시)

주의사항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입장권 예매 후 가상계좌입금(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VIP



연 회 비 10만 원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최대 관람료의 다음 좌석부터 지정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유료 시행 시 제공)

SPECIAL



연 회 비 5만 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유료 시행 시 제공)

MEMBER



연 회 비 3만 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유료 시행 시 제공)
- 비가입 단체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공통 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무료주차권(유료 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들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7년 예약 가능한 기획공연입니다.

※ 연주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권 좌석은 S석 기준에 한함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5)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초청공연

🕒 5월 20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 6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아다지오와 푸가 다단조 KV546
바흐/바이올린협주곡 마장조 BWV1042
요한 슈트라우스 2세/페르페툼 모빌레 등

- 지휘/데안 다식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 연주/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 8월 8일(화)~9일(수)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슈즈 대신 스케이팅을 신고 얼음 위에서 역동적이며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은 기존의 아이스 쇼와는 전혀 다른 정통 발레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월 14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힌데미트/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 Op.47
슈트라우스/영웅의 생애, Op.40

- 지휘/요엘 레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고도 미도리
- 연주/KBS교향악단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 '비엔나 챔버 플레이즈'

🕒 10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Op. 34
피아졸라/천사의 밀롱가, 천사의 죽음 외
● 바이올린/베스나 스타코비치, 유희승

- 비올라/페터 사가이책
- 첼로/마이클 윌리엄스
- 클라리넷/헬무트 회들
- 바순/비앙카 슈스터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 11월 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TWV51:G9
바흐/이탈리아 협주곡 BWV971

- 비발디/'사계' 중 '가을', '겨울'
- 지휘/타케하루 노부하라
- 연주/텔레만 실내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COUPON 01

BNK부산은행조은극장

공연관람료 10~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T. 1588-2757

COUPON 04

모차르트

음료 10% 할인
※ 식사 등 제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COUPON 07

안경나라(동래점)

전 상품 20% 할인
※ 일부품목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동래구 총렬대로 110

T. 505-8987

COUPON 10

대보당한의원

진료비 15% 할인
※ 비보험진료(당약, 봉침 등) 진료비, 청정한약
다이어트(홍보단 제외), 공진당, 경옥고 등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골든테마길 14

T. 412-7513

COUPON 02

공간소극장

공연관람료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T. 611-8518

COUPON 05

물회품은보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남구 석포로 116

T. 612-5820

COUPON 08

노벨안경콘택트

전 상품 2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T. 626-8263

COUPON 11

희망크리닉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 누리빌딩 9층

T. 804-0999

COUPON 03

필하모니

식사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COUPON 06

드레스ARIA

대여 및 판매 3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9

T. 515-5796

COUPON 09

여우 헤어스토리

현금 20%, 카드 10% 할인
※ 커트 제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중구 흑교로 16-1

T. 243-0609

COUPON 12

알파신경외과

진료비 10% 할인
정기회원 카드, 할인쿠폰 제시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T. 807-0114

부산시립무용단 제76회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Korean Contemporary Dance

춤, 인상

印象

DANCE-IMPRESSION
1장 전아(典雅)
2장 섬농(織穠)
3장 세련(洗鍊)
4장 웅혼(雄渾)
5장 소야(疎野)
6장 광달(曠達)

예술감독 김용철
Artistic Director KIM, Yong-Chul

2017. 5. 25 Thu - 26 Fri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권 균일 10,000원 예매처 부산문화회관 www.bscc.co.kr 문의 051)607-3121-2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8:30 /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국악관현악 고사령곡 추석제



2017. **5.30** (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이정필



지휘 | 김종섭



단장 | 이지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경북도립국악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입장료 | A석 5,000원 (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소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시간 월~금 19:00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지휘 **백진현**



마티네

조운범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Ⅲ



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김중희**



테너 **허동권**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Program

푸치니

G. Puccini

〈라보엠〉

La Bohème

그대의 찬송

Che Gelida Manina

기쁨은 어디에 있지

Donde lieta stasì

〈서부의 아가씨〉

La Fanciulla del West

자유의 몸이 되어 떠났다고

Ch'ella creda libero e spiritoso

〈토스카〉

Tosca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Visi d'arte/Visi d'amore

별은 빛나건만

E lucevan le stelle

〈잔니 스키키〉

Gianni Schicchi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O Mio Babbinio Caro

〈투란도트〉

Turandot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

2017.5.31(수)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EVENT

- ① 추첨을 통해 신세계 면세점 Gift Card와 화미주혜어 상품권을 드립니다.
- ② 선착순 500분께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노자와
 베토벤

喜

怒

哀

樂

2017. 6. 10(토) PM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기획공연

클래식, 철학을 듣다

예술감독 오충근

특별출연 최진석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희로애락

‘삼포’를 통해 오늘을 읽다

THREE
PORTS
TIME

법조계에 20년 이상 몸 담아온 변호사가 치밀하게 파헤쳐낸 조선사회의 실상
그 조선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모순의 실체를 지금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총 6권 · 지음이 문성근

오늘을 움직일 혁신적인 역사소설

현재 1, 2, 3권 발행
4, 5권 - 5월말 발행예정 / 6권 - 8월말 발행예정
구입문의 | 호민디앤피 807-5100



SANTORINI

지중해 환상의 섬 산토리니,
손 안의 작은 건축으로 완성된 산토리니 컬렉션은 아치형 건축이 가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RADIO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미코 프랑크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MIKKO FRANK, MUSIC DIRECTOR

FRANCE



시벨리우스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녹턴'

거슈인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협연 피아니스트 손영음

2017/5/20 | 토 |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부산일보사 | 후 원 | Amundi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암이 다른 부위로 못 가게 하는
전이 예방을 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암

암 전이 방지 및 치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 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서
검증된 논문 연구에 의해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이 추정



맞춤형 치료



한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로 효과 추정

| 치료 중 |

효과 증진

부작용 감소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치료중인 분들 중 여러번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체력이 견디지 못할 시에도 치료가능 합니다.

| 치료 후 | 전이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

본 원이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 될수 있는 이유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 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서 검증된 논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맞춤형 치료

본인의 혈액 검사에 따라 추정되는 적합한 치료를 합니다

2.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이 추정

암의 본원 치료 효과 및 전이 추정을 단순한 혈액 검사로 합니다

누네빛안과는 환자의 눈 상태, 생활습관과
직업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권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네빛안과

light for your eyes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www.nunevit.com